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6 1983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60 1983년 6월1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June 16,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선수 5명참가

버터플라이 캐나다 국제탁구대회

버터플라이 캐나다국제탁구대회(Butterfly Canadian International Table Tennis Championships)가 15일 토론토시내 매시홀(Massey Hall)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공, 서독, 미국, 캐나다등 5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됐다.

17일까지 3일간 계속될 이 대회는 남자단식과 여자단식 2개종목으로 열린다.

캐나다 탁구협회가 주최하고 온타리오탁구협회가 후원하는 본 대회는 캐나다의 탁구붐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계대회이다.

한국선수단은 현재 공군성무탁구단 소속인 이창훈, 정성수, 최의성 선수와, 대한항공(KAL) 소속인 백순애, 이진숙 선수등 남녀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대회에 출전할 선수단과 임원들은 13일 오전 미국을 경유 토론토에 도착, 세라톤센터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공군과 대한항공팀 선수들은 토론토도착에 앞서 5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제53회 전미오픈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 좋은 성과를 올렸다.

대한탁구협회 오병한 사무국장은 전미오픈탁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남자부 복식우승, 여자단체전우승, 혼합복식, 여자복식, 여자개인단식에 우승하는등 좋은 기록을 올렸다고 전하면서 버터플라이대회는 규모는 적으나 세계강호들이 참가해 그들과 실력대결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본대회에 출전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캐나다방문이 처음이나 그중 정성수선수는 80년도 캐나다오픈탁구대회에 고교선수로 혼합복식에 출전, 우승을 차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창훈선수는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역시 이 대회에 출전하는 중공의 차이췐우아선수와의 대전에서 3-2로 분패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설욕전을 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단의 김성진코취는 이번대회의 최대목표는 중공타도라고 말하고 중공선수들의 기량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14일오후7시30분토론토총영사관 주최의 만찬회에 참석, 환영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인솔자 최일영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전원과 오병환 한국탁구협회사무국장, 이상훈 총영사, 박영철 부총영사, 장순채 한인회장, 공군보라매회임원,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유용근씨등이 참석했다.

대전일정은 15일 남자부 예선, 16일여자부 예선과 준결승 17일 최종일 결승전으로 15일오후 6시30분에 최의성선수와 캐나다의 호라시오·핀테아선수와, 오후9시에 이창훈선수와 미국의 에릭·보렌선수가, 역시 9시30분에는 정성수선수가 중공의 시에사이케선수와 대전을 벌이며 여기서 승리하면 다음날 오후6시30분부터 시작되는 준결승에 출전한다.

한편 16일의 여자부 예선전에 출전하는 이진숙선수는 오후7시에 캐나다의 마리안·도본코스선수와, 백순애선수가 6시30분에 캐나다의 탄·마치선수와 대전을 벌여 승리하면 같은날밤 10시에 벌어지는 준결승에 진출한다.

이 대회의 상금은 남자우승 2,500달러, 준우승 1,500달러이며, 여자우승 1,000달러, 준우승 500달러이다.

이번대회에 출전하는 중공은 세계남자랭킹2위인 차이췐우아, 3위인 시에 사이케선수, 여자부 세계3 인 키·바오시엥, 4위 젠리주앙등 강호로 구성돼 있으며, 그밖에 서독의 피터엘거선수, 캐나다의 코사노빅, 탄마치선수등이 강선수이다.

입장권가격은 예선과 준결승 각각5달러이며 결승전은 7달러이다.

토론토한국일보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533-2361로.

◆버터플라이 탁구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 왼쪽으로 부터 최의성, 이진숙, 이창훈, 백순애, 정성수 선수

의석 사임하겠다

멀로니에 의석주기위해

(오타와) 노바스코시아주의 엘머·멕케이의원이 신임 브라이언·멀로니 보수당당수에 의석을 마련하기 위해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멕케이의원은 79년 보수당 집권당시 각료중의 한사람이었으며 71년 이후 계속 센추럴·노바 선거구에서 출마했었다.

이 선거구의 보궐선거 날자는 트루도수상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당 정책참모들은 멀로니와 대결할 자유당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멀로니 당수의 의석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군 최고성적 획득

수준높은 몬트리얼국제경연대회

◆김 진씨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진(25)군이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몬트리얼국제경연대회(Montreal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대상없는 2등에 당선, 상금 5천달러를 받았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계속된 이 경연대회는 소련등 세계각지에서 몰려온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경합, 13일 최종결선에서 김군이 일본인 유리꼬·나가누마(3등), 대만의 밍·펭·신(4등)을 누르고 최고점수를 얻었다.

역시 한국태생으로 파리에서 수학중인 강혜선양은 7위에 공동입상했다.

65년부터 시작된 몬트리얼 경연대회는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등 매년 한분야씩 번갈아가며 경연하는 세계적인 대회이다.

바이올린분야인 이번 대회에는 모두 5명의 한국인이 출전, 인디애나의 이순익군과, 김군, 강양등 3명의 한국인이 준결선까지 진출한 18명중에 포함됐었다.

브뤼셀의 퀸·일리자베스경연대회, 인디애나·폴리스경연대회,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경연대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몬트리얼·인터내셔널경연대회는 특히 심사의 공정성으로 이름이 높아, 지난18년간 상금 1만달러가 달린 최고대상(Grand Prize) 수상자로 캐네디언이 뽑힌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대상자체도 지금까지 5번밖에 수여되지 않았다.

8명의 심사위원 중 몬트리얼의 바이올리니스트 이다·헨델여사는 14일 심사결과가 발표된 뒤 "김군이 아직 젊기 때문에 언젠가 최고대상을 따게될 기회가 올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회 조직책임자인 어빙·헬러씨는 또 "13일밤 김씨의 연주는 독주자로서의 경력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으나 몬트리얼 경연대회는 컨테스트의 수준을 떠나 하나의 예술가로서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만 수여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몬트리얼대회는 피아노부문 경연이다.

김진군은 15일밤 8시 몬트리얼 플라스·데·아트(Place des Art)에서 CBC·FM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가운데 몬트리얼 심포니와 함께 수상기념으로 차이콥스키 협주곡 D장조를 연주한다.

김씨는 57년생으로 71년 예원중학교 2학년 재학당시 도미, 쥴리아드음악학교에서 이반·갈라미언 교수등에게서 지도받았으며 필라델피아의 커티스음악학교(펠릭스·갈리메르교수)를 거쳐 현재는 쥴리아드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살리·토마스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가족은 모두 헐리웃에 거주하고 있으며 LA 노인회 부회장인 황명순 여사의 9남매중 막내이다.

14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씨는 앞으로 연주가로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하고 이름있는 경연대회의 입상은 격려가 되고 앞으로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연주가로는 정경화, 김영욱, 강동석씨등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몬트리얼경연대회에는 위니펙출신 피아니스트 문익주씨가 지난 80년에, 토론토거주 소프라노 이주연씨가 72년에 각각 입상했었다.

한국 청소년축구 4강 진출!

관계기사 2면

▲한국의 호프 신연호선수(중앙)가 두번째 골을 성공시킨후 두팔을 높이들며 기뻐서 어쩔줄몰라 하고있다 〈이봉화특파원 찍음〉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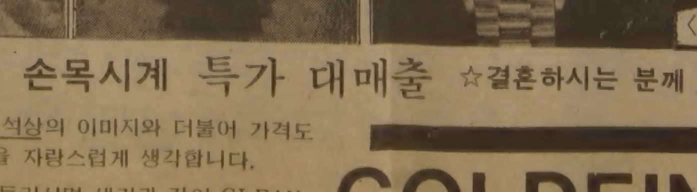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란 시세이도 화장품 콤
은하 보석
로렉스시계
결혼·약혼예물 할인판매
620A BLOOR ST. W.
☎ 534-9977·7791
오메가시계 45%~50%
귀국선물

은하보석상

$ 1/4 Million Diamond to SALE
▲다이아몬드
▲로렉스시계 월부판매
완전도매가격


〈교포 유일한 연방정부 보석가공공장면허 소지업체〉
ROLEX 로렉스 14금 여자용 수동식 손목시계 특가 대매출 ☆결혼하시는 분께 최적의 기회
현명한 소비자의 단골보석상 은하는 고급 보석상의 이미지와 더불어 가격도 절대 저렴하게 판매하며, 품질을 절대 보증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하에서 구입된 다이아몬드 반지는 언제나 들리시면 새것과 같이 CLEAN 해 드립니다.
GOLDFINGER JEWELLERY CO.
620A BLOOR ST. W. TOR.
☎534-9977/7791

강호 우루과이 격파

신연호 혼자 2골…… 전적 2대1

〈몬트레이, 멕시코-안봉환특파원〉제4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은 축구의 본고장에서 세계정상을 향해 돌진하고있다.

세계축구사에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있는 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은 지난11일 우승후보 물망에 오른 우루과이팀을 연장전끝에 2대1로 물리쳐 한국축구사에 대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아시아축구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한국은 15일 이번대회최강자 브라질과 준결승전을 벌여 정상고지에 다가선다.

이날 한국은 공격진 기수인 신연호선수를 중심으로 공수양면에 팀워크와 볼컨트롤을 스피드와 함께 주축으로 우루과이팀을 놀라게했다.

한국은 이날 전반전부터 페날티킥과 함께 수차례나 스코어를 기록할 찬스를 가졌으나 우루과이팀의 골키퍼 피컴선수의 방어에 부딪쳤다.

그러나 후반전개시 10분에 한국의 신연호선수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아 오른쪽으로 돌진해 들어가 낮은 강슛을 때려 귀중한 선취점을 올려 기선을 잡았다.

우루과이팀도 반격에 나서 후반전27분만에 마티네즈가 1점을 만회하여 게임은 15분연장으로 들어갔으나 신연호선수가 다시 1점을 성공시켜 승리를 굳혔다.

4강진출한 팀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아르젠틴, 폴란드, 브라질팀이며 준결승전은 토론토 시간으로 15일 오후 9시30분에 한국과 브라질, 오후6시30분에 아르젠틴과 폴란드가 각각 최종결승진출을 위해 격돌한다.

열광적 환영받아

황태자부부 헬리펙스 도착

(헬리팩스, 노바스코시아)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나공주는 캐나다 도착 첫날인 14일 20만명의 환영객으로부터 꽃다발 세례를 받았다.

14일 헬리팩스 개리슨 그라운즈에 도착한 이들 부부와 손한번 잡아보기 위해 수시간을 기다린 사람들 중의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찰스황태자는 개리슨에서 벌어진 환영식에서 북미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소개하는 최초의 기회를 가진 곳이 헬리팩스라고 말하고 내아내를 캐네디언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찰스황태자 부처는 18일간 캐나다에 머물 예정이다.

토론토병원 도착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암치료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밀한 방사능 암치료기가 14일 온타리오 암연구재단의 토론토·베이뷰병원에 도착했다.

캐나다 원자력회사의 의료부가 제작한 테락25(Therac 25)로 불려질 이 암치료기는 9월까지의 시험기간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테락 25는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방사성 치료기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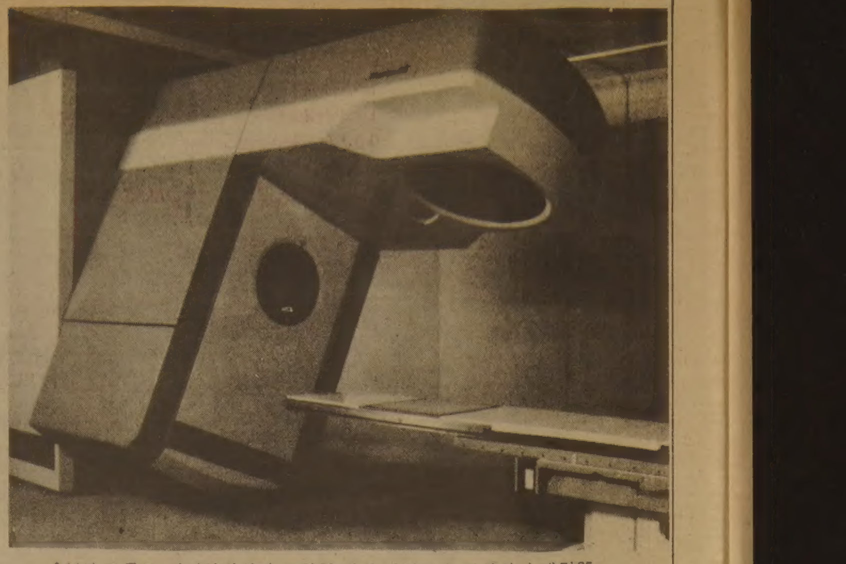
현재의 방사성 치료기는 피하종양에 큰 효과가 있는 반면 건강한 세포조직을 손상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27,000파운드 무게의 회색, 흰색이 섞인 이 기계는 아무 각도에서나 쏠 수 있도록 소리내지 않고 움직인다.

캐나다원자력회는 150만달러짜리인 이 기계에 대한 주문이 이미 12개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암연구재단은 첫번째 주문인 관계로 75만달러로 특별할인 받았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14일 토론토·베이뷰병원에 도착한 최신 암치료용 방사선기 테락25.

46개 민족관 장소확정

토론토 세계민족제전 캐라반

17일 개막되는 토론토 세계민족의 제전인 캐라반83에 참가하는 46개민족관의 장소가 확정되었다.

15년째 열리는 이 행사는 나날이 인기의 도를 더해 토론토의 명물로 손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캐라반을 평해 「시 소수민족의 진열장」이라고 말했으며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영국화에 대한 반발성격이 짙은 민족제전」이라고 평했다.

25일까지 9일간 계속될 이 행사의 각국관 패스포트는 10달러이며 이를 갖고 있으면 46개 민속관 어디든지 통용할 수 있다.

당일 입장할 수 있는 패스포트는 5달러, 12세이하의 아동은 성인과 동행할 경우 무료이다.

모든 민족관의 개장시간은 평일 오후6시부터 밤11시까지이며 주말인 토,일요일 양일간은 오후3시부터 밤11시까지이다.

매년 2백만명이상의 관람객이 각국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서울관은 10만~15만명이 방문했다.

금년도에 신설된 6개관은 칼가리관, 라파즈관, 탈린관, 로스앤젤리스관, 나폴리관, 내쉬빌관등이다.

TTC는 5개 캐라반루트에 특별버스를 배차, 승차료 1달러로 지역별로 안내한다.

모든 버스의 발차는 CN타워아래 주차장에서 매 2시간마다 출발한다.

서울관의 위치는 830 베서스트(블루어)의 카톨릭정보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CARAVAN PAVILIONS: 1. ANKARA - 706 Old Weston Rd.; **2. ATHENS** - 115 Bond St.; **3. BEIRUT** - 174 Orchard View Blvd.; **4. BELGRADE** - 212 Delaware Ave.; **5. BERLIN** - 410 Sherbourne St.; **6. BLUE DANUBE** - 214 Main St.; **7. BRUSSELS** - 2467 Eglinton Ave.; **8. BUDAPEST** - 840 St. Clair Ave. West; **9. CALGARY** - 67 Pottery Rd.; **10. CARDIFF** - 180 Eglinton Ave. West; **11. DAWSON CITY** - 83 Power St.; **12. HELSINKI** - 1100 Millwood Rd.; **13. JERUSALEM** - 750 Spadina Ave.; **14. KIEV** - 297 College St.; **15. KRAKOW** - 206 Beverley St.; **16. LA PAZ** - 547 Parliament St.; **17. LJUBLJANA** - 739 Brown's Line; **18. LONDON** - 1225 Lakeshore Blvd. West; **19. L'ORIGINAL** - 222 Queen's Quay West; **20. LOS ANGELES** - 222 Queen's Quay West; **21. LUXOR** - 235 Queen's Quay West; **22. LVIV** - 83-85 Christie St.; **23. MANILA** - 100 McCaul St.; **24. NAPLES** - 875 St. Clair Ave. West; **25. NASHVILLE** - 58 Sumach St.; **26. NEW DELHI** - 235 Queen's Quay West; **27. NOVGOROD** - 91 Kersdale Ave.; **28. ODESSA** - 620 Spadina Ave.; **29. POLTAYA** - 404 Bathurst St.; **30. PORT ROYAL** - 2050 Dufferin St.; **31. PORT OF SPAIN** - 707 Dundas St. West; **32. RIGA** - 4 Credit Union Dr.; **33. ST. JOHN'S** - 171 Hampton St.; **34. SEOUL** - 830 Bathurst St.; **35. SHANNON** - 1650 Dupont St.; **36. SKOPJE** - 76 Overlea Bld.; **37. SYDNEY AUCKLAND** - 292 Brunswick Ave.; **38. TALLINN** - 958 Broadview Ave.; **39. THESSALONIKI** - 30 Thorncliffe Park Dr.; **40. TOKYO** - 123 Wynford Dr.; **41. VIENNA** - 207 Beverley St.; **42. VILNIUS** - 1011 College St.; **43. VOLGA** - 823 Manning Ave.; **44. YEREVAN** - 45 Hallcrown Pl.; **45. ZAGREB** - 1625 Dupont St.; **46. ZAKOPANE** - 186 Cowan Ave.

뱃속 태아도 캐나다 시민인가?

법정, 이색판결 내려야할 판

방문자로 입국, 비자기간을 넘긴 필리핀 여인이 추방을 1주 앞두고 캐나다연방법원에 6개월된 뱃속의 아기가 캐나다 시민임을 인정해 주도록 13일 제소했다.

캐나다 법원이 뱃속의 태아의 시민권에 관계되는 건을 제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소한 빅토리아·데카스트로(34)여인은 지난 2월 추방영령을 받았으며 현재 온타리오주 해밀튼에 수감돼 있다.

데카스트로 여인의 변호사 데이빗·지머씨는 "현재 임신 6개월인 나의 고객은 단지 뱃속의 아기가 캐나다시민임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태아도 사람이므로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추방을 연기하던가 태아가 캐나다 시민임을 선언할 것을 법정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데카스트로여인의 남자친구로 태아의 아버지인 키치너의 플로이드·힌츠(38)씨는 태아가 추방된다면 아버지로서, 캐나다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이민성을 대표한 마이틀·더피 변호사는 태아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태아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캐나다 시민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데카스트로 여인은 지난 80년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했었다.

현재 모겐테일러씨가 설립한 낙태시술병원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크게 주목된다.

태아의 인권을 인정할 경우, 낙태는 살인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한맘골프 전적

〈11일 글렌·이글〉

▲그로스
박영철 75
강태영 78
김창갑 78
정길수 78(작년 챔피언)
김인환 81

▲넷
임정재 96 60
김종욱 87 63
김한용 87 65
김성운 88 66
최상철 87 67

▲톱10 (87점까지)

김인환 이무교 김기수 김영대 강경하 이동환 정용 송인문 김덕수 김영옥 최상철 김한용 김홍량 김종욱(동점 관계로 14명). 이들은 금년가을 한인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수퍼10대회에 참가, 금년도 주요대회에서 선정된 톱10 골퍼들과 수퍼·챔피언 선발전을 갖는다.

(정정 : 본보 15일자 2면에 게재된 한맘골프 사진중 오른쪽 인물을 정길수씨라고 한것은 홍진표 한맘골프회장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鍾 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金의 사나이

<255>

누가 惡魔인가 ⑯

그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한동안 침묵했다. 실내는 그들이 피워대는 담배연기로 자욱차있었다. 그들은 말은 안 했지만 사람 사냥이, 그것도 단 한 명을 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대머리가 입을 열었다.

『놈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놈한테는 지금 도망지는 일만 남았읍니다.』

『어떻게?』

『매우 안전한 방법이 아니면 나서지 않을 겁니다.』

『놈은 물론 헤로인도 가지고 가겠지.』

『목숨을 걸고 찾은 이상 가지고 가겠지요. 더구나 2천만 달러어치나 되는데 버릴리야 없겠지요. 그는 애초부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고 여자만 탈취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는 헤로인을 가지고나가 처분하겠지요. 그것만 처분하면 그는 평생 호화롭게 살수있는 돈을쥐게되니까요. 그라면 물건을 성공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겁니다.』

『그는 빠져나갈 수 없어!』

대머리는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다.

『어림없는 소리야! 이번에는 놓쳤지만 다음 번에는 어림없어! 꼭 붙잡고말테야!』

『……。』

마형사는 대머리로부터 눈을 돌렸다.

『지금 서울은완전히 봉쇄돼있어! 공항과 항구도 봉쇄돼있어! 날아갈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어! 제깐놈이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야?』

그때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자네가 받아봐。』

마인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나 장관이요。』

점잖은 목소리가 말했다。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다급한 느낌이었다。

대머리는 주먹을 불끈쥐고 소리쳐

朴 男 그림

『본부장 있어요?』

『잠깐 기다려주십시요。』

마인은 굳은 표정으로 대머리를 바라보았다。

『뭐야?』

대머리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장관이십니다。』

마인은 감정없이 말했다。

『뭐, 뭐라구?』

『장관이십니다。』

대머리는 어느새 일어나있었다。

『장관이 왜?』

『모르겠읍니다』

본부장은 홍빛이되어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105본부장입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까지 더듬거리고 있었다。

『나 장관이요』

『아, 네네…』

대머리는 머리를 조아렸다。

『방금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오?』

대머리는 벽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아침6시10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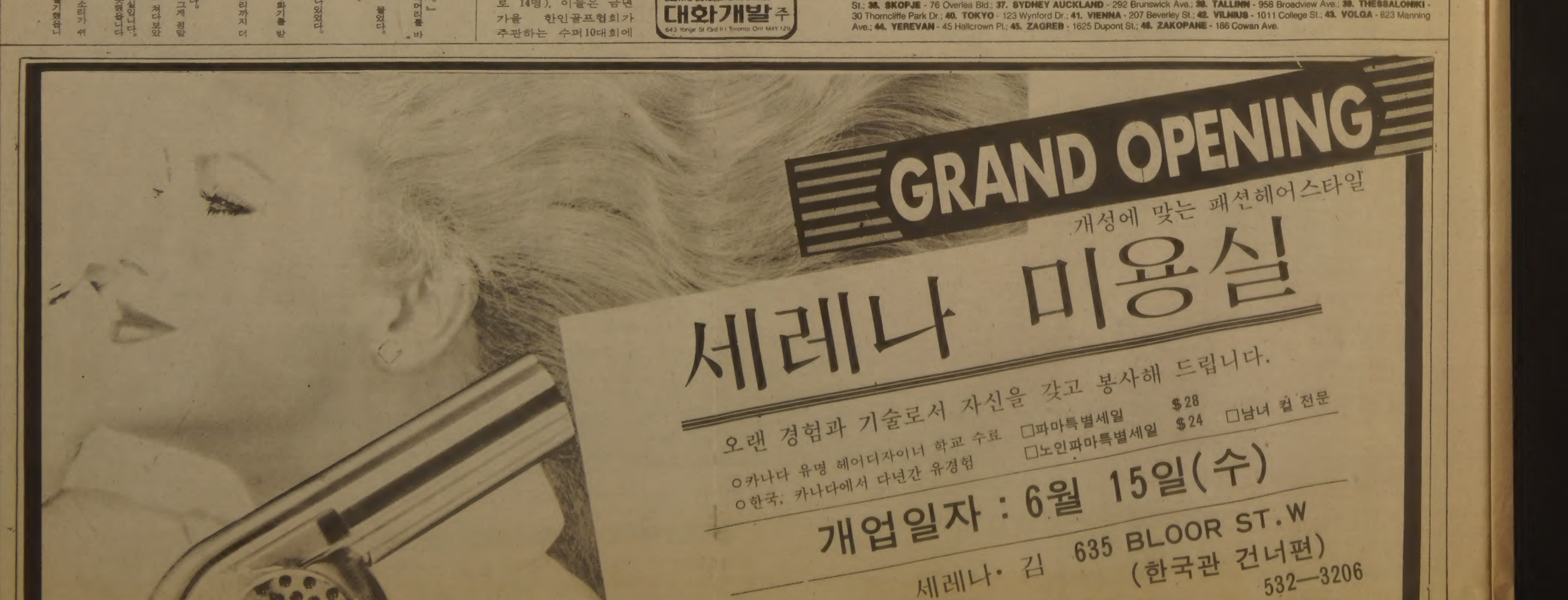
『네네, 죄송스럽게도 사실입니다。저는 아직 뉴스를 듣지못했읍니다만…』

『으음…』

감기 기운이있는지 신음소리가 쉬어있다。

『죄, 죄송합니다。만전을기했읍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전을 기했다고요?』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사이먼과 가펑클〉공연

7월21일 CNE스태디움, $17.50씩

의미깊은 가사와 클래식에 가까운 음악성 높은 곡들을 직접 작사·작곡·연주한 미국 팝송계의 거장 사이몬과 가펑클(Simon & Garfunkel)이 오는 7월21일 토론토 CNE 스태디움에서 공연한다.

「사이몬과 가펑클」은 〈내 오랜 친구 어둠이여 너와 다시 얘기를 나누러 왔다……〉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영화 〈졸업〉의 주제가 〈침묵의 소리(Sound of Silence)〉를 비롯, 〈험난한 물결위의 다리같이(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등 인생사를 시적으로 표현한 가사와 잔잔한 멜로디, 격조높은 연주로 비틀즈 이후 가장 큰 인기를 얻은 남성 듀엣중의 하나이다.

21일 저녁8시30분 부터 시작될 이 공연의 티켓은 17.50달러씩, 2 Bloor St. E. 등 각 베이백화점과 A & A 레코드사및 Bass 티켓판매처에서 13일부터 매표가 시작된다.

◆7월 21일 CNE에서 공연할 사이몬과 가펑클

보수당 임시의장 닐슨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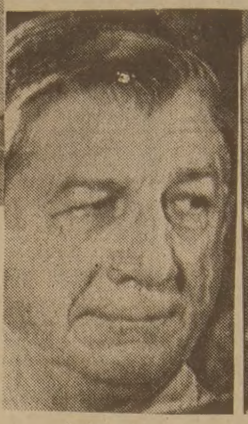
상원경비원 두달전 비밀결혼

(오타와) 조·클락 전 보수당 당수가 당수선출 전당대회 개최를 발표한 이후 연방의회에서 임시 야당대표직을 맡아온 에릭·닐슨(59)의원이 두달전에 버뮤다에서 상원경비원과 비밀리에 결혼했음이 발표됐다.

13일 아침 상원이 개회되자마자 결혼사실을 밝혀 놀라움을 안겨준 닐슨의원은 69년 부인과 사별했었으며 3명의 장성한 자녀를 갖고 있다.

닐슨부인이 된 쉘리·콕스포드씨는 13일부로 경비원직을 사직했다.

닐슨의원은 새로 보수당당수가 된 멀로니씨가 의석을 차지, 방청석대신 의원석에 앉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임시대표 의원직을 고수한다.



◆에릭·닐슨씨

◆콕스포드씨

즉석 햄버거는 우수식품

빅맥, 워퍼, 단백질등 함유

「빅맥」, 「워퍼」등의 즉석 햄버거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통념보다 훨씬 우수한 식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과학·보건협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15만 체인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이들 음식은 단백질, 철분, 디아민, 나이아신, 리보플라빈, V, B6, V, B12, 인등의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햄버거 체인점 단골고객 2백80명의 식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주문된 식단의 90%가 단백질 1일 권장량의 25%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주문된 식단의 51%는 디아민 1일 권장량의 25%를 함유하고 있다.

▲주문된 식단의 36%가 철분 1일 권장량의 25%를 함유.

▲주문된 식단의 28%는 칼슘 1일 권장량의 25%를 함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즉석 음식들의 단점도 지적되었는데, 즉석음식은 지방 함유가 많고 칼로리가 높으며, 염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 A, 비타민 C성분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3가지 식단에 대한 분석도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빅맥」과 프렌치 프라이(레귤러), 쵸코릿 셰이크는 도합 1천1백66칼로리로, 염분은 1천4백19미리그램으로 집계되었다. 영양학자들이 권장하는 성인의 1일 칼로리 권장량은 2천 칼로리이며, 염분의 1일 권장량은 1천1백~3천3백미리그램이다.

◉켄터커·프라이·치킨·디너(치킨 2쪽, 매쉬드 포테이토, 그레이비, 콜슬로우, 빵)와 콜라(12온스)는 도합 8백6칼로리, 염분의 양은 1천5백36미리그램으로 밝혀졌다.

◉「핏자 헛」의 미디움 싸이즈 핏자 한쪽반과 콜라(12온스)는 도합 8백20칼로리, 염분의 양은 1천8백미리그램.

이 보고서는 이들 즉석음식들이 대체로 영양면에서 훌륭한 식품이라고 권하면서, 즉석음식을 현명하게 먹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음료로 다이어트소프트 드링크를 곁들여 칼로리를 낮추고 되도록 적은량의 햄버거를 주문한다. 그리고 마요네즈 등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소스는 피한다.

◆피클, 소스, 케찹, 머스타드등을 가급적 멀리해 염분의 양을 줄이고, 주문시에도 소금을 치지 말도록 부탁한다.

직업여성 건강양호

주부여성보다 사회적 도움커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건강상 좋다. 이 주장은 최근 존스·홉킨스 대학의 두명의 여성연구원들의 조사결과이다.

이 대학의 인구학 교수인 콘스탄스·너댄손씨와 박사과정학생인 매리앤·퍼샌번티양은 국립건강통계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하고 1천명이상을 인터뷰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을 가진 남성의 38.1%가「아주 양호하다」고 대답했고 여성들 가운데는 38.7%가 이와 같은 대답을 한 반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27.6%만이 건강하다고 대답했다는 것.

그러면 왜 이처럼 직업 있는 여성들이 집에만 있는 여성들보다 건강할까? 확실히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직업여성들은 사회적인 유대와 도움을 받고 있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점이 그중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외에 일단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여성들은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외에 직장남성과 여성이 다른 점은 직장여성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다는 점이다. 직장남성은 작년 한해동안 2.87회 의사를 찾아갔고, 직장여성은 3.88회, 가정주부들은 5.14회였다.

"잠자기가 최고"

캐나다인의 건강비결

(오타와) 일반적으로 대부분 캐나다인들이 달리기(Run), 뜀뛰기(Jump)등 움직임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거나 담배를 끊어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임이 나타났다.

7일 캐나다 체육부(Fitness Canada)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2,000명의 조사대상 중 78%가 건강유지 비결이 잠자는 것에 있다고 응답했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건축 설계
DON LEE DESIGN
설계, 허가
시공, 감리
상업건물, 주택
RESTAURANT
스토어 디자인
B)362-1414
R)361-1653
이동규
인터리어
디자인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한인최초의
CUT FLOWER
도매상
오직 주문에 한합니다
주문일자 6월15일(수)부터
CUT FLOWER만 취급
(화초는 취급 안합니다)
철저한 신용과 친절봉사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Mr. 리)

호남향우회 야유회
향우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야유회를 갖게 되었사오니 향우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 소 : 모닝싸이드 팍
◇일 시 : 7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우천시는 연기, 차후 연락드림)
※음료수와 갈비는 준비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많은 경품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연락처 : 마보훈 677-1888, 김인병 431-0493, 김광철 923-8737
호남향우회
임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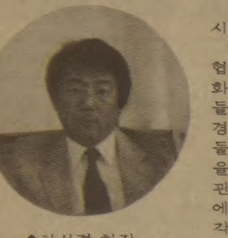
확장이전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금) 저희 도장을 3,000 sq.ft의 넓은 장소로 이전해서 교민들과 자녀들에게 좀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1차 왕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임송학 올림
"튼튼한 몸에 건전한 정신"
임송학태권도장
1937 Weston Rd.
(로렌스×웨스트)
◉247-7577 (피자집 2층)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여러분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 협동조합설립의 문턱에서 —


◆차선겸 회장

존경하는 협회원 여러분!

염원하여오던 우리들의 협동조합 설립이 목전에 다가왔읍니다. 현재로선 저희들이 세웠던 추진계획도 여러분의 크신 성원 아래 순조로히 진척되고 있으며 지난 9일 발기총회에서는 조합설립의 초석이 되는 정관도 확정이 되었읍니다.

저희들 협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많은 회원들 중에는 조합의 체계, 관리방안, 그리고 장래의 비젼에 대하여 때로는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1천2백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의 일원일원이 하나같이 백퍼센트의 만족을 기대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님을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협동조합의 설립이 구체화되면서 염원하던 우리들의 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 과연 무엇을 회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떠한 난관이 우리들의 조합장래에 밀어닥칠까 하고 심각히 생각해 보곤 했읍니다.

기존 유태계도매상들의 가격덤핑, 그들의 Credit Term 연장으로 인한 고객유치작전, 공급선 차단을 위한 방해작전등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틀림 없읍니다. 일부회원들께서는 이를 필요이상으로 염려한 나머지 조합의 장래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오나, 우리들 조합의 장래는 그들의 와해공작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단결력과 인내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협회원 여러분!

묵묵히 버티어가는 지구력과 도량 깊은 이해심의 바탕 위에 십년을 하루같이 염원하던 우리들만의 협동조합을 성공시킴으로써 이땅에 뿌리를 내려 년년세세 대를 이어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민 1세로써 그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십시다.

회원 여러분들의 크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83년 6월10일
협회장 차선겸

대한상공회의소 자매결연의사 비춰

—서이사장 귀국—

지난 5월달 모국을 방문한 본협회의 서준경이사장은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13일 귀국하였다. 이민후 7년만에 가사와 더불어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모국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의 협의라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귀국하였던 서이사장은 한국의 경제인협회, 상공회의소, 무역인협회등의 간부진들과 진지한 협의관계를 상의하였으며 특히 상공회의소의 김인준 전무이사와는 본 실업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자매결연, 또는 지부설정관계 수립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담을 하였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김인준 전무(좌)와 서이사장.

대한상공회의소의 김전무는 "최근 수년간 해외의 어느 지역, 어느 단체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한 적이 없다. 1천2백명 이상의 거대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온타리오 실업인협회가 자매결연을 요청한다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 특히 자체의 공동구매를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을 연내에 추진하고 있다니, 이는 그곳 실업인들의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두 단체간에 여러가지 협조방안을 모색하여 모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매결연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소의 방침이 결정되는 즉시 통보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음은 본 실업인협회의 자매결연 신청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편지사본이다.

상공회의소에서 온 서신의 사본

차선겸 회장 귀하.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역만리에서 현지 교포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모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회장님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전 략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지난 4월12일자 그곳 토론토의 한국일보 보도와 같은 본회의소와 온타리오한인상공인협회와의 자매결연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이점 교포사회 일반의 오해가 없도록 널리 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소의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모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귀협회와의 자매 결연건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그 제도가 생기는대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협회의 꾸준한 발전과 가정에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1983년 5월21일
김 인 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주식청약 제100호

김춘탁회원

회원번호 588번의 김춘탁회원(Pritchard Grocery, 52 Pritchard Ave. 소재)이 협동조합의 주식청약 제100호로 신청하였다.

주식청약 100번째로 등록한 김회원은 "자신이 실협회원이 된지는 불과 1년밖에 안되지만 우리협회원 전체의 엄청난 구매력을 서양도매상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자체의 이익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뿌듯함을 느낀다. 하루속히 우리의 도매상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협회 간부진들의 노력과 희생에 다소나마 후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서둘렀다 한다.

◆김춘탁 회원

"한술밥에 배부를수 없듯이 초기단계인 지금으로선 조합의 체제,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아무쪼록 이해하고 단결된 바탕 아래 성공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THE KITCHEN SINK IS CLOGGED UP.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변기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을때, sink가 막혔을때,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을때, 바퀴벌레가 많아 약을 뿌려달라고 할때 등등, 이럴때는 manager(메네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가령 sink가 막힌경우 먼저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이름을 밝힌후 This is Kim in apartment 203. My sink is clogged up. Can you send someone over to check it? (203호에 사는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싱크가 막혔는데 누구를 좀 보내 조사해 주시겠읍니까?)와 같이 이야기하면 시정이 될것이다.

다음에 나열되는 표현들은 윗문장의 줄친 부분에 대입하면 훌륭한 말을 구사할수 있다.

- My drain is clogged up. (하수구가 막혔다)
- There's no hot water in the bathroom. (목욕탕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
- There're too many roaches around.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 My cold water faucet in the kitchen is dripping. (부엌의 찬물수도꼭지가 샌다)
- The wall is leaking. (벽에 물이 샌다)
- The heat is not on. (히팅이 안들어 온다)
-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에어컨이 고장났다)

A:Hello. This is Mr. Kim in apartment 203.
My kitchen sink is clogged up. Can you send someone over to check it?
B:Yes, I can. I'll send someone over as soon as possible.
A:I'd appreciate it. It's very annoying.
B:I understand.
A:By the way, when was the last time the exterminator was here?
B:Last month. Do you have a problem in your apartment?

A:여보세요. 203호 아파트에 사는 미스터 김입니다. 우리 부엌싱크가 막혔는데 사람을 보내서 점검하도록 해주시겠읍니까?
B:네. 가능한 한 즉시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읍니다.
A: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주 신경이 거슬립니다.
B:잘 알겠읍니다.
A:그건 그렇고 바퀴약 뿌리는 사람이 최근에 언제 왔었어요?
B:지난달에 왔었읍니다. 댁의 아파트에 바퀴가 많은 가요?

※annoy:괴롭히다. exterminator:해충구제자 janitor:관리인, 수위
faucet:수도꼭지 drip:물방울이 떨어지다. roach:바퀴벌레 drain:하수구

〈인터뷰〉

이춘수위원장을 찾아서

— 조합정관의 골자를 알아본다 —

편집자주--협동조합의 정관이 확정되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7월초의 창립총회를 치루면, 우리의 협동조합은 문을 열게 된다. 벌써부터 주식청약신청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이 싯점에서 우리모두가 조합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싶은 점을 캐내보기 위해서 그동안 조합탄생의 주역을 맡아온 이춘수 위원장을 찾아 보았다.

주야로 협동조합의 추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경주하는 바람에 그 좋아하는 골프도 제대로 못나가고, 자기 사업체의 매상은 $1,000이나 떨어졌다고 하면서 입을 연 이위원장은 그래도 한인사회의 이민사상 역사적인 최대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된 것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진지한 해답을 해주었다.

자기사업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모두를 위해서 봉사해온 그의 노력에 짐짓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부터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모두가 이일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1. 일반적으로 조합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데 협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도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문)

(답) 한마디로 조합장은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를 하는 경우 능력없는 자가 표만 확보하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안정된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초창기에는 실협회장과 조합장이 각각 선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협 자체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직선을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임운영이사회의 17명중 9명을 주주가 선출하게 함으로써 주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한 것이다.

2. 1인1주1표를 원칙으로한 근본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문)

(답) 협동조합이 어느 특정인들의 것이 아니고 조합원 전체의 것이 되도록 하자는 것과 이렇게 함으로서 보다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일부 회원들이 주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1인다수주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후일에 개인기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도로 배제해보려 하는것이 근본 의도인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협동조합법에 다수주를 소유하더라도 투표권은 1인1표밖에 인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춘수 추진위원장

3. 조합의 성공여부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문)

(답) 많은 회원들이 기존 유태계도매상들이 협동조합의 방해를 위해서 공격해오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조합의 성패는 그들의 공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얼마나 굳게 단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능한 조합장을 맞이하느냐에 또한 크게 좌우된다고 본다.

4. 귀하가 보는 이상적인 조합장형은 무엇인가? (문)

(답) 많은 회원들이 직선에 의해 선발된 조합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번잡한 선거절차(협회장, 조합장)를 통하여 단결에 저해가 될 징후가 농후하며, 초창기의 조합장은 정치적이 아니고 양심적인 전문경영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합의 년 물동량이 초기년도에 이미 3천만불 이상의 엄청난 우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합장에게는 완전한 생활보장을 시켜주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5. 일부에서는 협회집행부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감을 갖고 있는데? (문)

(답) 얼핏 생각하면 협회측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해부족에서 오는 기우라고 본다. 협회장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집행부의결이 수반되어야 하며, 조합의 최고의사결정은 집행부 회장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9명의 주주대표를 포함한 17인의 상임운영이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6.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이 상임운영이사회라고 하는데 그의 속성은 무엇인가? (문)

(답) 첫째, 조합전체에 대한 정책의결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주지하다시피 각도매상들은 고객을 모으기 위해 매주 다른 품목의 Special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가격의 결정, Special 품목의 선정내지는 업자와의 협상등을 결정하게 된다.

둘째, 협회장이 추천한 조합장 및 회계의 인준업무를 관장한다.

세째, 회기말 이윤에 대한 지불 내지는 잉여금의 율을 결정한다.

7. 다음에 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

(답) 한국말의 어감이 어색하기는 하나 결국은 조합에 상주하면서 협회의 방침과 조합의 운영에 대한 교량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야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8. 회원들의 가장 큰 궁금지사인 실질적인 혜택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문)

(답) (1) 지금까지 신의상사의 경영실적을 감안해 볼때 첫해의 매상고는 담배만으로도 연 3천만불은 무난하리라고 본다. 제반경비를 최대한으로 잡는다 해도 근 1백만불의 이익이 예상된다. 500명의 주주가 참여한다고 가정할때 1년도 채 못되어서 각조합원이 출자한 액수이상을 Return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각 기존도매상들이 지난 수개월간 담배값을 Dumping하고 있으므로 우리협동조합으로서 좋은 시기라고 볼 수는 없다.

(2)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Delivery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초기에는 2주간의 Credit을 이자 없이 받을 수 있다.

(4) 현재계획으로는 6개월 이내에 Full Line을 써비스 할 수 있는 큰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전체품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9. 조합장의 자격문제에서 10만불이상의 현금담보 내지는 신용장 개설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 (문)

(답) 물동량이 큼에 따라 재고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담보요건으로 10만불 예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물동량에 비하면, 이 액수는 극히 기본선에 불과하다.

Inventory의 Minus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는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 조합에 참여할 주주를 어느 선으로 보는가? (문)

(답) 작년 정관초안을 처음 작성할 때는 200명 내외로 보아서 주가도 3천불로 내정했었으나, 지난 1년간 급격한 회원의 증가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의 고취로 최소한 500명은 참여할 것으로 본다. 불과 며칠사이에 주식을 청약한 회원수만도 200명을 초과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한다고 본다.

11. 담배 License의 이관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문)

(답) 지금까지로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

12. Grand Opening은 예정대로 될것 같은가? (문)

(답) 현재의 추진상황이나 회원들의 관심도로 보아서는 당초 계획한 7월16일 Open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협동조합장 모집공고

역사적인 협동조합의 발족을 맞아 초대 조합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한인사회 및 실업인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할 유능한 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응모기간 : 1983년 6월 10일 – 1983년 7월 1일
2. 응모자격 : (1)금치산선고, 파산선고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
(2)도매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유경험자.
(3)$100,000의 담보금(보증수표 또는 Letter of Credit)을 예치할 수 있는 자.
3. 구비서류 : (1)이력서 1통
(2)사진 1매
(3)사업계획서 1통

※응모서류는 본 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 1K8)로 등기우송 바람.
※일체의 응모서류는 반환치 않음.

1983년 6월 10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협동조합 발기위원장 차선겸
준비위원장 이춘수

협동조합 제1차주식 청약 모집 공고

오는 7월 5일 협동조합 창립을 앞두고 본 협동조합 정관 제 3장 제 6조 및 제 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주를 모집하오니 모든 실협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기 간 : 1983년 7월 1일
2. 장 소 : (1)실협사무실(627Bloor St. W. Toronto, Ont. M6G 1K8) 533-7923
(2)실협임원 및 이사
(3)외환은행 부루어 지점
3. 주식가격 : 주당 $1,000.-
4. 구매한도 : 1인1주 (단, 1인이 1주 이상 구입도 가능하나 투표권행사는 1인 1표로 제한)
5. 불입방법 : (1)현금 또는 보증수표(Certified Cheque)
(2)6개월 연불(매달 $175.-씩)
※연불의 경우 외환은행에 신청하여야 함.
6. 불 입 처 : (1)실협사무실
(2)실협임원 또는 이사
(3)외환은행 블루어 지점

※주식청약신청서는 실협사무실이나 실협임원 또는 이사에게 문의 바람.

1983년 6월 10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사무보조원 모집공고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조사무원(여)를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1명
자 격 : 고등학교졸업자로서 캐나다에 영주하는 사람
언 어 : 한국어 및 영어 사용
제출서류 : 국영문 이력서 각 1통
사진 1매
신청마감 : 1983년 6월 25일
제출장소 : 실업인협회 사무실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 1K8
533-7923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협동조합 발기위원장 차선겸
준비위원장 이춘수

내년 總物價 1%로 억제

政府 豫算편성작업 月末께 마무리

緊縮… 환율·公共料 동결

都賣물가는 0%로

정부는 한자리수 물가가 3년째를 맞게되는 내년중 경제의 모든부문에서 안정기조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기위해 내년도예산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는것은 물론 물가·환율·금리·통화등 주요정책 변수들도 모두 올해 수준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도매물가 상승률 0%, 환율인상 0%, 현행저금리체계의 계속유지, 공공요금동결등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있으며 이같은 전제를토대로 예산편성작업이 진행되고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도·소매물가와 임금·집값등을 포함한 국민경제전체의 물가상승률 (이른바 GNP디플레이터)을 올해의 5·5% (추정) 에서 내년에는 1%로 낮춘다는방침아래 내년도예산안과 예산편성의 전제가되는 경제운용계획의 골격을 짜고있다. GNP 디플레이터가 1%가될 경우 도매물가상승률은 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가된다.

정부는 올해 도매물가가 1%이내에서 억제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 내년에는 0%의 실현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환율과 금리및 공공요금을 올해수준에서 억제, 동결하고 강력한 금융긴축을 통해 총통화증가율도 올해수준 (15%)이하로 억제하며 예산도 올해수준으로 동결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내년도 규모가 올해와 숫자상으로 같도록(10조4천억원) 명목적으로 동결하는 방안과 ▲GNP 디플레이 터만 반영, 1% (1천억원정도) 만 늘려 실질수준을 동결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달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在日同胞 처우협의

14일 韓日실무회의

在日한국인 처우문제에 관한 제2차 韓日고위실무자회의가 14, 1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회의는 지난81년 1차회의때 일본측이 약속한 ▲35세이하의 在日한국인에대한 국민年金制 실시확대▲출입국관리령및 일반永住허가범위확대▲在日한국인에대한 再入國 비자의 複數制실시▲외국인등록법의 등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등에관해 재검토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협의한다.

한국측은 在日한국인들이 就業에 차별대우를 받고있는 점을 지적, 이에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인대응책을 요구하는한편 협정영주권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朝總聯에서 轉向해 영주권을 얻지못한 10만여명의 우리동포들에대한 구제조치를 아울러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人 이사 잦다

작년 8백61만명 옮겨

首都圈 날로肥大、서울轉入만 13만명

企劃院 조사

서울과 그주변으로 이사온는 사람들이 계속늘어나 수도권 비대증이 갈수록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2년 주민등록 전출입에의한 인구이동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사나간 사람은 66만5천4백35명인데 반해 서울로 이사들어온 사람은 79만7천2백95명으로 출생말고 이사로만 늘어난 인구가 13만1천8백60명에 달했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포함한 광의의 수도권인구는 31만9천7백14명이 늘어 81년의 28만7천명보다 더 많았다.

지방의경우 부산·인천·대구·광주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감소했는데 ▲全南이 6만7천명 ▲慶北이 9만4천명 ▲全北5만9천명▲忠南4만9천명씩 줄었다.

작년한해동안 이사를 한 사람은 8백61만6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2·1%가 이사를했는데 이처럼 인구이동률이 높은것 (日本은 5·9%)은▲취업자리▲교육▲주택부족에 따른 두뇌불안등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各黨 國會대책 마무리

學園문제등 막후折衷 시도

국회는 13일하오 제1백17회 임시국회를열어 개회식을 가진뒤 金相浹국무총리로부터 國政보고를 듣고 14·15양일간 對정부질문을 벌인다.

10일간의 會期로 열리는 이번국회는 16일부터 常任委 활동에 들어가 野黨이 제출할것으로 보이는 정치被규제자 解禁건의안등 일련의 정치의안과 정부제출 일반법안을 심의한후 이중 20건정도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民正·民韓·국민당등 주요정당들은 11일 각종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대책을 마무리지었다.

民正黨은 이날하오 질문자회의를 열어 對정부질문내용을 조정했으며 당직자들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전날 원내대책회의결론을 토대로 최종 대책을 협의, 野黨의 정치解禁案에 대해서는 제출과정에서부터 與野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처리방안을을 사전 논의키로했다.

民正黨은 특히 이번국회에서 民韓黨의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어 국회기간동 野黨측과 활발한 막후절충을 통해 이번국회를 내실있게 끝낼수있는 방안을 계속모색키로했다.

그런데 民正黨은 野黨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하는 解禁案의경우 지난번의 1차解禁에이어 정부가 이미 단계적解禁을 약속했기때문에 합법적동기가 없는이상 처리가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어 앞으로 與野간 많은논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民韓黨도 이날 상오총무단국회常委간사연석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대책을논의, 본회의대정부질문이 끝날때까지는 16일부터 열리는 각상위별 日程에 응하지않기로했다.

이날회의는 그러나 常委가 열릴경우 金泳三前新民黨총재의 단식사건에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유언비어에대한 정부의 확고한태도가 무엇인지 천명하도록노력하는한편 학원사태、人權문제등을 철저히 따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金씨의斷食등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와 답변을 듣고 常委활동이개시되기전에 黨의 내무、법사、문공위원연석회의를열어 學園동향등에대한 대책을 논의키로했다.

이밖에▲국회文公委에서는학원동태전반에▲法司委에서는 不法감금문제▲保社委는 元豊모방사건등 勞使문제를 추궁하고 농수산위서는 양곡관리법개정、적정한 夏穀수매가 책정등을 요구키로했다.

民韓黨은 이에 앞서 10일 하오 의원총회에서▲모든 정치被규제자들을 즉각解禁、復權시킬것 ▲정부는 학원의 자율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할것 ▲언론통제를 즉각철폐할것 ▲계류중인 정치의안을 조속히 처리할것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당도 이날상오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기본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제출키로 결정하는 한편 정치被규제자 전면 解禁건의안 또는 정치풍토쇄신법폐지법률안을 野圈공동으로 제출토록 民韓黨및 議政同友會와 교섭을 벌이기로했다.

이날 의총에서 趙炳奎·金永生、李泰模、金基洙、金完泰의원등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와 문교및 문공부장관의 解任건의안을 제출할것을 주장했으나 이문제는 총재단이 추후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날 의총은 또 대정부질문원고기초위원으로 李奉模、金完泰、姜棋弼、金基洙、金瀚宣의원등 5명을선정했다.

非違공무원 懲戒

작년 6천2백명

82년 한햇동안 직무遺棄 贈收賄등 공무원들의 각종非違로인한 懲戒건수는 모두 6천2백59건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총무처가펴낸 年報에 의하면 지난해의 징계건수는 81년의 6천6백81건에 비해 4백22건이 줄어들었으나 지방공무원의 징계건수는 前年의 1천8백92건에 비해 6백10건이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집계건수가 늘어난 경우는 이밖에도 교육공무원으로 前年의 1백85건에 비해 1백69건이 늘어난 3백34건이다.

제10회 한국援護大賞 施賞

내일 上午11시 한국일보 12층강당서

社告

스포츠寫眞年鑑 첫출간

83年版 컬러로 再現된 긴장과 感激의 현장

한국일보와 日刊스포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포츠寫眞年鑑을 출간, 시판에 들어갔읍니다. 83스포츠寫眞年鑑은 한국의 스포츠 歷史를 추적하면서 여기에 상응한 寫眞과 해설을 곁들여 누구나 한눈으로 볼수있게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자부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큰 특징중의 하나는 스포츠의 생활화로 스포츠는 즐기는 단계를 넘어 참여하는 스포츠, 알고 이해하는 스포츠로 바뀌어가고있으며 이에따라 스포츠年鑑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해졌읍니다. 日刊스포츠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專門紙로서 이와같은 시대적요청에 부응하기위해 스포츠총보적인 寫眞年鑑을 펴내 한국스포츠의 영광과 고뇌, 긴장과 감격의순간과 현장을 낱낱이수록, 鳥瞰토록 했읍니다. 내용은 ▲82년도 국내외 각종 경기 ▲86아시안게임·88올림픽게임 준비사항 ▲近代한국스포츠의 발자취 ▲人物로본 體育1백년 ▲附錄에는 한국스포츠 태동기부터 현재까지의 각종자료를 정리했읍니다. 菊倍版 호화洋裝 3백50페이지로 편집된 이 年鑑은 컬러사진 2백10장 단색사진 2백15장을 精選수록, 감격의 순간을 재현시키고 있읍니다. 日刊스포츠는 해마다 더욱 알찬 스포츠寫眞年鑑을 펼쳐낼것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體育 100年 한눈에

350페이지호화洋裝

▲공급문의처=한국일보出版局 ⑫4372
▲釜山營業所=⑭1453
▲값=30、000원

한국일보·日刊스포츠

人工腎臟器 국산화

85년까지、呼吸器도

大企業 앞다퉈參與

인공호흡기·인공신장기등이 국산화된다.

또 환자의 병세를 보다 세밀하게 진찰할수있는 NMRCT (핵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도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다.

11일 보사부에따르면 국내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외면해온 의료장비생산사업에 뛰어들어 비싼 외제를 들여옴으로써·환자들이 격던 치료비부담이 덜어지게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각종 의료장비를 자체기술 또는 선진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하는등 연간5백50억원의 의료장비산업시장에 뛰어들었다.

보사부에의하면 5월한달동안 국산의료장비제조희망자등록접수결과모두49개업체 (신규등록25·기존24)가 등록했는데 이미의료장비를 부분적으로 생산해온 金星통신이외에 大宇전자 三星정밀 斗山산업등 6대기업이 혈관조영촬영장치、환자감시장치등 모두 35가지를 오는85년까지 생산하겠다고 등록했다.

金星통신의경우 이미 연구소를 설치、심장충격기등을 자체개발하는한편 과학기술원 (KAIST)、日本도시바와함께 모두 18가지를 생산할계획이며 三星전자도 지난연말 美國GE社·日도시바와 기술제휴、혈액냉장고등 5가지품목을 84년부터 생산할계획이다.

코오롱은 日도레이社와 손잡고 인공신장기등 4가지를 생산하며 斗山산업은 이탈리아AR社 프랑스롬손社와 제휴, X선 필름현상기등을 생산하기위해 공장부지를 물색중이다.

이밖에 大宇전자 三星정밀등도 자체개발을통해 초음파진단기등을 생산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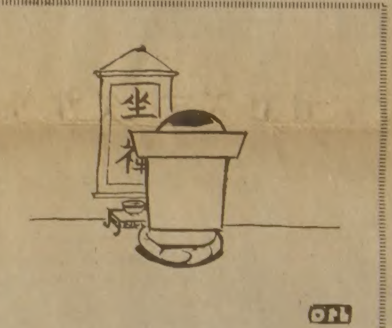
이같이 대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는것은▲전국민보건의료망편성과 관련, 수요증가에따른 기업경영적판단이 섰데다▲정부의 국산장비개발방침으로수입관세가 높아지는등의 요인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정부는 고가 의료장비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현재평균 15%선인 관세율을 20%선으로 올릴 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보사부는 내주부터 등록업체의 실태조사를 거쳐 초음파진단기등 중복신청이 많은 이른바 인기품목의 수요를 감안 업체별로 조정、생산하도록 지정해 주기로 했다.

가로쓰는 社說 新鮮한 내용

社會漫評



이러자니 저렇고…
저러자니 이렇고…

파푸아 뉴기니外相

내달2일 訪韓

◇나말리우長官

파푸아·뉴기니의 나말리우 외무·통상장관이 李範錫외무장관의 초청으로 7월2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나말리우외상은 訪韓중 全斗煥대통령과 金相浹국무총리를 예방하고 李장관과는 韓·파푸아·뉴기니외상회담을 갖고 양국의기존우호협력증진방안및 공동관심사를 협의한다.

地平線

言論이 政治에 큰 힘을 줄때가 많다. 34년께 中國공산당은 蔣介石軍에 쫓겨 延安으로 들어갔다. 毛澤東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거·스노씨를 延安으로 불러, 그가 대중과 똑같이 동굴생활을 하며 혁명에 집념하고있음을 애써 보여주었다.

▼스노씨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아마도 國府軍의 부패상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延安을 美化했는지도 모른다. 그가 그린 毛澤東, 周恩來 그리고 中共軍의 실상은 「赤匪」라는 나쁜 이미지를 불식했다. 그 저술은 毛澤東, 周恩來를 세계에 알려주었고, 中國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크게 기여했다.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41)이 지난2일 北京에 도착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도착 날짜까지 밝혀지는것을 보면 金正日의 北京방문보도는 상당히 근거가있어 보인다.

▼작년4월 北京政府의 鄧小平과 胡耀邦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한것이 뒤늦게 알려졌었다. 평양에서 후계정권을 닦은 金正日과 北京지도자들의 만나는 장면이 TV로 大陸中國에방영되었다한다. 金正日의北京방문은 北京지도층이 金正日의 世襲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주는것이 된다.

▼金의 北京방문을 비밀에 붙이고있는것은 제6기 全人大會에영향주지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것같다. 金正日이 어떤 인물인지는 그야말로 암흑의 커튼에가려있다. 장막속 정치는 암흑정치일수밖에 없으니 北京이 어찌나오건 북한사정이 달라질것은 없다. 스노씨가 거듭 찾아간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테레비죤선교방송
생명의말씀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수요일 오전 10:30-11:00
M.T.V. (Channel 47, Cable 4)
토론토한인장로교회
TORONTO KOREAN PRESBYTERIAN CHURCH
TEL: (416) 535-6864

운 전 학 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789-1679

Grant Brown
GM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테잎 2,600여개
보유
새로운 연속극 입하!
□새댁 □다녀왔읍니다 □청춘행진곡
□안개 □엄마는 바빠요 □추동궁마마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 532-0210
손병헌

훌륭한 광고는 훌륭한 신문을,
훌륭한 신문은 훌륭한 사회를 만듭니다.
광고는 기사와 함께 신문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사로 가득찬 신문이더라도
생기가 없는 광고,
아이디어가 마른 광고는
그 신문이 절름발이식 보기 나쁜 얼굴로 독자들의 눈에 반영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일보-토론토〉는 지난 6월1일 역사적인 일간지로 비약한지
제2주년 (창간 9 주년) 을 맞았읍니다.
저희는 그간 훌륭한 광고주들의 성원결과 단1호의 결간없이 꾸준히
신문을 발행했읍니다.
이것은 좋은 광고 덕분이며, 저희 직원 23명의 한결같은 마음의 결실이었읍니다.
광고 효과는 뛰어납니다.
즉, 토론토·스타 같이 많은 부수를 발행하지는 않으나
전 교민중의 구독률은 전 캐네디안중 〈스타〉 지 독자가 차지하는 비율(%) 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본보를 이용했던 많은 비 교민광고주들도 광고효과에 놀라 계속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교민 사업가 여러분은
사업발전을 위해서, 본보 광고란을 이용해 주시고
일반 교민들은
주위 캐네디안 업체에 본보의 존재를 알려
광고를 내게해 주십시오.
좋은 광고는 좋은 신문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사 광고국
대표전화 : (416) 533-2361
송광호·이순호·최귀암·이경숙·수잔

安保문제 團結과시

나토外相회의 閉幕、核타결안되면 퍼싱Ⅱ배치

【파리UPI AFP=聯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외상들은 10일 美·蘇중거리핵미사일제한회담이 결실을 맺지못할 경우에 대비, 美製퍼싱Ⅱ미사일등 신형중거리미사일을 당초의 계획대로오는12월부터 서유럽배치를 강행키로 하는등 안보문제에 관한 서방측의단결을 과시하고 이틀간의회의를 마쳤다。

나토외상들은 지난17년만에 처음으로 파리에서열린외상회의를폐막하기에앞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밖에도소련에대해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을 중단하고 폴란드에 대해서도무력위협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나토외상들은 對蘇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보였으나 두시간반동안의 의견조정끝에『對공산권과의 교역은 나토의광범한 안보우려를 고려해서 이뤄져야한다』는 문귀를 공동성명에 삽입했다。

◇友情의 握手 제19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회의가 열리고있는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의 아프리카·홀에서 10일 휴식시간을 이용해 우정을 다지고있는 아프리카지도자들(왼쪽으로부터 줄리우스·니레레탄자니아대통령, 로버트·무가베 짐바브웨수상, 에뎀·콘조 토고대통령, 카운다 잠비아대통령)。【아디스 아바바10日AP聯合=聯合】

오끼나와駐屯 美해병 日有事時도 투입검토

日산께이新聞 보도

【東京=聯合】미국은한반도와중동의유사시전방배치부대의 역할을 담당하는오끼나와(沖繩)주둔 美해병대를 일본유사시에도 해협봉쇄작전 또는 逆상륙작전에 투입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께이(産經)신문은11일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美해병대가 육상자위대와의 공동훈련실시는물론 일본유사시에 대비한美日공동작전계획 연구에도 참여할것을 최근 요구해왔다고 보도하고 이는 일본유사시 해병대를 即應부대로 투입하려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라고 분석했다。

印、北傀외교관 追放

다이어먼드등 密輸혐의、서기관1명

【뉴델리AP=聯合】인도정부는 다이어먼드와 시계등을 밀수한 혐의로 인도주재 北傀대사관 1등서기관 方봉남에게 인도를 떠나도록 추방령을 내렸다고 인도의 UNI통신이 10일 보도했다。

UNI통신은 한 정부관리의 말을인용,인도외무성이 이날 뉴델리 주재 北傀대사 유태섭을 외무성으로 불러 그같이 통고했다고 전했다。

인도외무성대변인은 이같은 보도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지으면서『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만 말할뿐 더이상의 자세한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方은 지난17일 싱가포르로부터 다이어먼드와 시계등의 밀수품을갖고 인도로들어오다 세관당국에의해 적발됐었는데 밀수품은 1만9천루피(1천9백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되었으나 뒤에 한 정부소식통은 2천5백달러나 된다고 말했으며 한외교소식통은 1만달러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統一문제 워크숍

15일 新羅호텔서

「세계경제추이와 韓半島통일」이라는 주제의 통일문제 국제워크숍이 15일부터 18일까지 신라호텔영빈관에서 열린다。

美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원이 후원하는 이 워크숍은 15일하오 개회식을 갖고 16일부터「南北韓의 사회·문화의 변동」과 「주요강대국의 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토의를 벌이게된다。

워크숍에는20여명의韓·美·日관계학자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핌外相 경질可能性

대처 TV회견서 小幅개각비쳐

【런던聯合AP=聯合】이번 영국총선에서 압승을거둔 마거리트·대처首相(57)은 10일 곧 개각에 착수,『강력하고 분명하며 과감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런던북부의 지역구 핀츨리에서 이날 다우닝가10번지 수상관저로 돌아온 대처수상은 TV회견을 통해 보수당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표하면서 새로 구성될 정부에는 보수당내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 새로운 인물들이 기용될것이라고 밝혔다。

대처수상은 그러나 많은 각료들이 유임될 것이라고 말해 대폭적인 개각은 없을것임을 명백히했는데 관측통들은 포클랜드전이전에 대처수상의 후계자가될 것으로 지목되었던 프란시스·핌외상이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분석했다。

편지쓰기大會 施賞

어제, 本社강당에서

체신부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올해 전국어린이 편지쓰기대회 시상식이 11일상오 한국일보사강당에서 吳明체신부차관、張在九 한국일보 사장、수상 어린이와 학부모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거행됐다。

中共全人代 副委長 廖承志 사망

【北京AP UPI=聯合】중공당정치국원겸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상무위 부위원장이자 부활된 국가부주석에 곧 임명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던 廖承志가 1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관영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미사일 交通事故 일단의 美軍기술병들이 10일 西獨의 한고속도로상에서 미사일수송차량의 충돌사고로 길위에떨어진호크地對空미사일을 점검하고있다。【뷔르츠부르크(西獨)UPI聯合=聯合】

日 東京에 컴퓨터생선회집 登場

요리사 1명이 손님10명을 상대

일본의 선·아통社는 생선회를 즐기는 사람들을위해 세계최초의 컴퓨터생선회집을 東京근교에 차렸다。

이회사간부 이이다·요시로씨에 따르면 생선회집에 온 손님들은 각테이블과카운터에 부착돼있는 마이크로 컴퓨터 메뉴판을 통해 생선회와 마실것을 주문하게되며 손님들의 주문은요리사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계산서에 기록된다는것。

이이다씨는 컴퓨터가 손님들의 주문을 일일이 기억해야하는 요리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때문에『요리사는 한꺼번에 10여명의 손님을 쉽게 감당할수가있다』면서 앞으로 일본국내뿐만아니라 해외에도 지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P】

海外토픽

婚姻後 여성이름 계속사용권등

스위스 76년만에 결혼법률 改正

스위스 하원은 여성에게 평등을 더 부여하기 위해 이나라에서 76년간 내려온 「남자는 주인이다」라는 결혼법률을최근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여성의주택선택권과 결혼후 자신이 원한다면 이름을 계속 사용할수있는 권리외에도 남편의 정확한 수입및 부채를 알권리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이항목만은 의사·목사·공증인·법률가등은 대외로 하고 있다는것。【UPI】

동위원소 사용한 癌진단장치 개발

특수한 방사성同位원소를 사용하여 인체내부의癌을 아주 간단하게 찾아내는 획기적 장치가 일본에서 개발됐다。

東北대학의 방사선의학연구실 마쓰자와 교수팀이 간장암·췌장암(膵臟癌)등의 진단에 이미 성공한 이 장치는 切開와 암세포검사를 하지않는한 정확히 진단할수 없었던 내장암의정밀검사가 가능할뿐 아니라 암의 크기와 이전장소·생화학적 성질까지 한꺼번에 진단함으로써 癌조기발견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聯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記者의 눈

고달픈 義務만…

在日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를 다루는 한·일간 고위실무자회의가 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81년에 이어 2년만에 열리는 이번회담은 특히 나까소네(中曾根)정권이 탄생한후 처음갖는 회담이라는데서 60만 在日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고달픈 의무만 있을뿐 누릴권리는 없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65년에 조인된 한일협정은 이들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는 어느정도 계기가됐다。그러나 아직도 생활권의 확보등 根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어 일본사회 이곳저곳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20여년전의 協定전문에 명시된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영위할수있는것이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기여하는것이다」라는정신은 과연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를 다시생각케된다。

「우리 재일동포는 한국籍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생활권、교육권등 갖가지 제한을 받고있는유랑민」이라는 恨들을 수없이 듣는다。

『우리동포들은 연간 1천6백억엔의 땀흘려 모은 수입을 세금으로내고있읍니다。그러면서도 취직과 사후보장에대한 차별이 嚴存함은 무슨까닭입니까』『1世인 35세이상의 동포들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용받지못하는이유는?』『未등록 협정영주권자들을 아직까지 구제조치하지 않는 까닭은?』『5만사할린 억류동포의 귀환에 일본정부가 성의를 보이지않는 이유는?』『재일동포를 범죄視하는 入管法과 외국인등록법은 왜 철폐되지 않는가?』하는것들은 바로 우리동포들이 日常에서 뼈저리게 겪는 아픔이요 슬픔들이었다。

이 아픔과 슬픔은 지문채취를 거부한채 법정투쟁에들어간 崔昌華목사、차별대우를 견디지못해 끝내 자살까지하게한 이른 林賢一군、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사법연수원의 입교가 좌절된 金敬得씨、히타찌(日立) 입사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朴鍾碩군 사건등이옹변으로 설명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번 이번 회담에 한가닥기대를 걸어보는것이다。

「재일동포의 존재가 바로 일본의 지난 역사적 罪過의 결과」임을인정한다면 또 재일동포에 대한 문제해결이 진정한 우호증진의 키」임을 인식한다면 말이다。【東京=宋孝彬특파원】

政局往來

報告에 정치문제 담아

13일 국회에서 金相浹총리가행할 國政보고文案작성을 서둘러온 국무총리실은 11일 文案의 大綱을 마련하고 휴일인 12일에는관계자들이출근, 마지막 손질을할 계획。「法案심의국회」에서「정치議案국회」로 바뀔 가능성을 반영한듯 國政보고내용은 金泳三씨斷食단등 정치적인 분야에 비교적 많이 할애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관계자는 이밖에도 被拉中共여객기 사건에따라 빚어진 韓·中共간의 교섭경위를 비롯, 외교안보문제와 過熱경기를 보이는 경제、물가안정의 定着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라고 豫告。

한편 報告文은 원고지 30~40장분량이 될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관계자는 對政府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金씨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

野黨에 언질줄수 없어

民正黨의 李鍾贊 총무는 11일『야당이 새로 제출하겠다는 정치 解禁건의안의 본질은 제쳐 두고라도 절차상으로 우리와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할 대목이있다』고 말해 주목。

李총무는 이날아침 기자들과간담하는 자리에서『民韓·국민당은 이미 같은 解禁案을 국회에냈고 특히 民韓黨의 건의안은 토의종결까지 마친 상태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의로 철회를 하지 않는이상 새 건의안을 낼수없다』며『野黨측이 對정부질문이끝난 15일께 최종대책을 마련한다니 그때 다시 野黨총무와 상의해 보겠다』고 설명。

그는 이어『현단계로서는 야당에 어떤 약속이나 언질을 줄수있는 상황이 아니다』며『民韓黨이 解禁을 계속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解禁이 오히려 民韓黨에 苦肉策이 되지않을지 모르겠다』고 「意味」있는 말을 하기도。

“解禁요구 실현되면 民韓黨에 오히려 苦肉策이 되지않을지…”

국회앞서 총리실 通話

民韓黨은 11일 총무단과 국회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막바지 원내대책을 논의했는데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오는15일까지 일체의 常委일정의 합의를 留保키로 결정。林鍾基총무는『이는 시의적절한 우리의 處方箋제시요구를 여당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다려보기위한 판단때문』이라며 2단계 원내전략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示唆。

이날 회의서는 金泳三 前총재의 斷食문제등이 집중거론됐는데 柳晙相의원은『黨의 내무·문공·법사위 연석회의를 열자』孫世一의원은『학원동태전반에 공개질의를 펴야한다』李官炯의원은『軟禁문제를 집중추궁하자』고주장。

한편 林총무는 회의를 마친뒤 趙英吉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전화를 걸어『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큰만큼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측의 입장을 소신껏 당당하게 피력하도록 총리께 말씀을 여 달라』고 당부。

그는 또 우리는 黨利黨略的 차원이 아닌 國利民福의 자세에서 입하고 있으니, 정부측은 이번기회에 정당과 국회의 기능을 국민들이 재인식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말도함께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語調높여 입장밝혀야

국회대책을 논의한 11일국민당의원총회는 李東鎭총무로부터 저간의 보고를 듣고 20여명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院內전략을 開陳。

議總벽두 李총무는『이번 국회에서는 金泳三씨 斷食문제등과언론자유문제등에 관해 우리당의입장을 좀더 톤을 높여 밝히자』고 강조。

이에 趙炳奎·李聖秀의원등은『톤을 높이라고 하는데 총무의 확고한 신념과 腹案을 먼저 밝혀달라』고 주문했고 申喆均·姜祺弼·金永生의원등은『이번국회에서는 언론자유문제·全面解禁·학원문제·정치의안등의 관철을 위해노력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金翰官의원은『우리의 모든 노력을 정치적 현안에 맞추기위해 그간 준비했던 2개법률안및 1개건의안은 이번 국회에 내지말자』고 제의했고 金完泰대변인은『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내각총사퇴를 촉구하자』고 말하기도。

이처럼 분위기가 加熱돼가자李총무는『현재의 時局문제에 대해 정부도 某種의 대처방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안다』며 냉정을 당부했다。

社 說

궁금증과 政治

—民主化 프로그램을 생각하며

내일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與野는 며칠새 「黨內대책회의」와「議員총회」 그리고 막후의 戰略숙의등으로 몹시 부산했다고한다。대체로「政治解禁」 문제등 「懸案」 논의의「院內수렴」에는 야릇한 同感이 느껴지나 解決의 視角은 다르다고 알려져있다。

場外政治의 「院內수렴」을 위해 국민의 궁금증 풀이가 필요하다는데는 누구도 異論이 없겠다。하나 그「궁금증」의 내용은 狀況변화에 따라 답보하는 것이 아니다。그런대로 지난 9일 「최근의 政治的관심사」가 전新民黨총재 金泳三씨등의 斷食사태였으며 또 그 중단이 밝혀진 이상 다음차례의 관심사는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한단계 높은 解決방안에 쏠리게마련이다。

이제 정녕 국민이 궁금한것은 표방으로서의 民主化의 의지가 아니라 實踐에 직결되는 民主化의 프로그램 자체이다。물론 그 바탕으로될 각 政黨의 再整理된 政治哲學을 듣고싶은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국민은 與野의 「院內戰略」이라든지 「利害타산」의 修辭學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않는다。환언한다면 「급한대로 발등불 끈다」는 격의 미봉이나 타결내지 일단 수습등을 맴돌바 아니라는것이다。

「政黨은 조직화된 輿論이다」고 디즈레일리는 갈파하였다。국회는 그같은 政黨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장 자유로운 言論의 府이다。政治人의 本領은 관료도 法官도아니라는것을 명기하는데서 여하한 국민輿論을 대변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할것으로믿는다。제5공화국의 으뜸가는 國政指標가 民主主義의 土着化였음은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그동안의 여러가지 경위에 비추어 지금국민輿論은 그 구체적이고 뒤늦지않은 現實的日程을알고싶은 것이다。

政治의 영원한 주제는 理想과現實, 需要와 條件의 동시감안이라고 한다。하나 그것은 二律背反이 아니고 국민앞에 천명된 理想을향해 現實을 부단히 發展시키는 것으로하여 正統性은 다짐되는 법이다。

政治의경색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그럴수록 現實安住의 타성을 벗어나 政治發展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기 위해 與野가 心機一轉의 분발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遊牧民族이다

—恒產이없으면 恒心도 없다는데…

맹자의 어머니는 세번이나 집을 옮겼다고해서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델이 돼왔다。그만큼 집을옮기기란 좀체로 어려운 「인간大事」에 속한다는 뜻도된다。그러나 지금의 한국인에게 집을 옮긴다는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이 돼버린듯한 인상이다。

지난82년 한햇동안 한국인 1백명중 22·1명이 집을옮겼다고 한다 (경제기획원통계)。머릿수로쳐서 8백61만6천명의 인구가 이사를했다는것이다。손쉽게 말해서 이웃 일본의 5·9%에 비해 3·74배가 넘는 숫자다。이중에서 농촌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옮긴 인구는 31만3천명이었다。따라서 96·3%의압도적인 숫자가 도시안에서의 이동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대도시 인구집중의 결과이기도 한 도시의「셋방인구」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건설부가 지난3월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작년말현재73·5%다。그러나 농촌지역에서 3·5%정도 남아도는데 비해, 도시지역에서는 61%에 지나지 않는다。게다가 부산의 55·2%에서 서울의 58·8%나 인천의 59·9%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의 내집에서 사는 인구는 60%에 못미치고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을뿐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분산시키고, 서민들을 위한 집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셋방살이」의 안정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의 배려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철새처럼 보따리를 싸들고 옮기는 풍습이 「셋방」때문만이라고 장담할수는없다。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직장에서 눌러 앉는 평균근속연수는 일본의 3분의 1쯤인 2·8년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부 집계)。지난해의 경우엔 1백명중 56·4명이 자리를 옮겼다。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철새처럼 일자리를 옮기는 산업계의 풍토를 알수있다。

집을 옮기고, 일자리를 옮기는 생리는 결국 지금 우리사회가 과거에 미처 경험하지못했을만큼 숨가쁘게 돌아가고있는 사회적 격변기에 있음을 말하고있다。부정적으로 말해서 「불안의세대」요, 긍정적으로말해서「사회적유동성」에대한욕구가그만큼큰세대가바로지금의한국인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자 고도성장의 산물이기도 하다。인플레와 투기바람이 낳은 부작용이기도 하다。

모두가 낯선 사람들 틈새에서 뿌리를 내리지못하고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현대한국의 대도시민들은 옛날 定着農耕社會에서 삐져나온 새로운遊牧民이다。恒產이없고, 恒心도 없다。이들에게안정을 주는 방도는 무엇일까。또 스스로안정하도록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다。

새 돈

어제부터 5천원·1천원짜리 새 지폐가 나왔다。율곡선생초상과 오죽헌을 그린 5천원권은 이제까지 보다는 크기가 작아졌고, 퇴계선생과 도산서원 그림의 1천원권은 가로는줄고 세로는 약간 길어졌다。이 두가지 새돈의 특징은 앞못보는 이들을위하여 點字를 박아넣은 점이다。

새돈이나 그전부터의 돈이나 돈가치는 한결같다。크기가 다르다 하여, 또는 새로 만들었다하여 그가치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사실은 화폐만이 지니는 특징이다。다른 모든것은 형체가 크면 값이 더하고 새것과 헌것 사이에도 값이 다른것이 보통이다。

이제까지 만들어낸 돈의 종류를 열거하는 일은 쉽지않다。몇차례의 화폐개혁으로 새돈들이 쏟아져 나왔고, 새로운 모습이 좋아서도 새 돈이 나왔다。그중 소액권과 소액동전은 쓰여지지 않는것도 여럿이다。날이갈에 따라 돈가치가 떨어진것이 원인이다。

종이돈이건 쇠돈이건간에 그물질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지니는것은 아니다。오로지 나라의 公信力으로서 그 표시한 금액의 가치를 보장한데 따라 모두가 그 보장을 철석같이 믿고 이를 주고 받고 하는것이다。

이 보장이 내실있는것이 되자면 돈가치가 줄지않고 늘어야 하는 것인데 자주 나오는 새로운 돈은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어 우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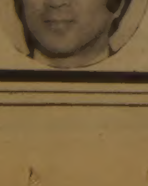
유통되는 통화규모는 대개 정부지출액+은행융자액에서 정부수입액과 예금액을빼고난 금액과 같다。따라서 우리의돈은 적자재정으로늘고 은행융자가 예금보다 많아도 는다。

그런데 돈은 절대로 좋은것이되 그 量은 많을수록 나쁘다。이사실도 돈만이 드물게 지니는 특색이다。많을수록 나쁘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게하는 적자재정과 예금을 초과하는 융자가 바람직하지않은 사리와 연결되는것이다。

토마스·만의 소설『부덴브로오크스家』는先代는 돈,돈더미속에서 태어난 2代는 명예를,그리고 돈과 명예속에서자란 3代는 美를 각각 최고의 가치로 삼고사는것을 그렸다。돈만을 알면 사람들은 守錢奴라고멸시한다。우리도 돈을 영예와 예술의 가치속에 승화하는,그런날이 빨리왔으면한다。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 오전 11시~새벽 1시
금~토 : 오전 11시~새벽 2시
일 : 오후 1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외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인삼, 녹용을 가루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관절염 특효약
◎자연을 마시자!(천연식품)
◎힘을 마시자!(녹용원액)
◎정력을 키우자!(보신탕원액)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지방문의환영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덴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 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캬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 성 수

아침 한때

나는 곧 우리이고 우리는 곧 나

공동체 조직한 個人들이 중요한것

崔載喜 (서울大명예교수·학술원회원)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는 라디오 방송 소리를 듣고 기뻐했던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머리에 떠 오른다. 광복이후 벌써 38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세대를 대략 30년이라고 한다면 한세대하고도 8개년이 더 지난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수한 大小 사건을 경험하였다. 큰 사건으로 정권들의잦았던 交替도 잊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腦裡에 가장 뚜렷한 기억을, 아니 체험을 안겨 준 크나큰 사건은 역시 6·25 動亂일 것이다.

6·25 동란의 발단이 북한측의 뜻밖의 奇襲에 연유한 것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북괴군이 38선을 넘어서 침략해온지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그만 敵手에 떨어지고 말았다. 당시의 암담했던 심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러한 동란과 저러한 정권 교체들을 통해서 우리국민들의 생활 지주로서 그 어떤 철학이라고 할것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회상의 테마로 삼아 보고자 한다.

이런 생각에 잠겼을적에 아래로 국민들로부터 솟아 오른 그 어떤 철학이라고 할것이 없었다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때 그때에 말하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식의 傳令은 있었으나 아래로 국민에서 일관되게 꿰뚫고 온 그 어떤 철학같은 것은 발견되기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생활지주로서의 그 어떤 철학이라고 말했을때에, 그것은 우리 국민 대중생활에 있어서 까다로운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는 뜻이아니다. 이런 일은 아예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반공사상이 지금보다도 더 투철해야 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반공사상은 우리나라의 國是로서 국민 대중의 생활내부에서 이미 生理化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때 까지 결핍된 감을 받는 그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공산국가와는 다른 자유국가인 한국의 국민대중이 자유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 바른 자유 생활을 누리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야하지않을까.

이런 지침에 한번 想到해볼 때에, 무엇 보다도 먼저 착안해야할 명제가 「나는 곧 우리이고, 우리라는 것은 곧 나이다」라는 명제일까 싶다. 이 명제만은 국민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명심하고 있어야 할 명제일것같다.

「우리인 나」를 의식하는 한국 국민이 自由가 自律이요 혹은 자치력임은 비교적 잘 알려진 지식일 듯하다. 민주주의라는 데모크라시는 인민이라는 (demos)와 지배라는 크라토스(cratos)란는 말이 합해서 된 말로서, 국민 대중의 자율적 자치적인 힘을 뜻하는 것임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국민 대중이 이러한 自由를 이해하고 있고, 이런 자유가 국민의 생활풍토를 이루고 있다면, 정권의 교체가 잦고 政商輩의 作戱가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대중의 기반적인 自治力의 牙城속에 정치가 아닌 정상배의 작희가 파고 들어 갈 수 없고, 그 牙城앞에 좌절하겠기 때문이다.

한국은 엄마 안가서 선진국의 대열에 참가하고자 발돋움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희망에 찬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희망을 안고 발돋움할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는 국민의 자치력이라고 하고 싶다.

요사이 신문지상의 사회면을 보면, 독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쾌보보다는 독자의 마음을 우울케 하는 참혹한 보도가 훨씬 많다. 거의 매일처럼 강도·살인·사기·공금 횡령등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趙모같은 무식한 大盜가 아니고 은행 지점의 대리급인 有識人이 거액의 돈을 횡령도주한 보도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도적인 은행원에게 기대될 수 있는 自律的 의식의 완전한 결핍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도범이 금전과 물품을 뺏는 외에 강간같은 추행을했다는 보도를 접했을때에는, 경악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末世가 되었다는 감까지 자아낸다. 앞으로 東方禮儀之國民이란는 말따위는 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나라가 광복후 38년이나 되었건마는 국민들의 依支가 되는 그어떤 철학이 없었던것같다고 말했지마는, 이런 철학의 출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英佛과 비교해서 아직 후진민족의위치에 있었을 뿐더러, 3백餘의 여러小邦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19세기초엽 독일민족의한 철인 헤겔이 보여준 식견이 참고가 될지모른다.

그에 의하면 동양문명권에서는 전제정치와 노예制가 지배했다. 그래서 自由는 君主인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스-로마문명권의 세계에서도 노예제가 여전히 있었으나 自由의 범위는 다소 넓혀져서 한사람이 아닌 若干人에게 미쳤다. 즉 自由는 모든 개인의권리는 아니었으나 귀족출신 일부시민만의 권리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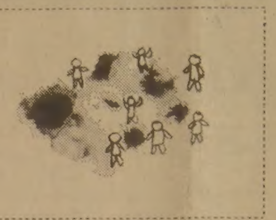
근대 유럽 文明의 主役이었던 게르만 국민들에 이르러서 自由는 萬人의 자유로 의식되었다. 게르만 국민들이란 현재의 서구문명을 쌓아온 英·佛·獨·伊등의 서구인들을 지시한것이다.

이런 서구인들이 만인의 자유 혹은 「一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자유를 의식한데에는, 헤겔에 의하면 정치적 사회적 대사건으로서의 프랑스혁명의정신이 막중한 영향을 미쳤던것이다.

근대의 서구인들이 만인의 자유를 의식하기는 했지만, 그들도 그들의사회제도에 있어서 실은 自由를 완전히 실현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인이 自由를 의식했다고한는 주장은,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역사의 전진과함께 오히려 萬人이 자유를의식해야 한다는 인류사 진행의 목표를 말했다고 보아진다.

이런점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가 존중한 자유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그가 의미한 자유는 속박의 缺如가 아니었고 自制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修身的인 自制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全體로서의 공동체의 자유였다. 따라서 이런 자유가 개개시민에게는 외부에서 강요된것같은 인상을 줄수도 있었으나, 실은 개인과 공동체간의 대립을 지나치게 강요한것에 반대한 것이었다.



그가 포부한 자유는 劃一的이 아닌 多樣속에서의 統一이었고, 어디까지나 성원인 개인을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全體的 생활이었다. 이런 全體的생활이 공산사회의 생활과 다른 특색일 것이다. 全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成員들의 自治力이거나 개별성과 떨어질수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全體的생활에 착안했다고해서 그를 곧 그 어떤 專制的 全體主義者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견지에서 그의 근대적사상에는 이미 우리가 말한 「내가 곧 우리요,우리가 곧 나라는 사상」이 시종일관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공동체를 조직한 개인들을 중요시하고자 한다. 개인들로 조직된 정부는 필경 개인들의 反映物이기 때문이다. 自治力이 빼어난 개인들 보다도 뒤떨어진 정부는 결국 빼어난 그개인들의 水準으로 끌어올려 지는 것이요, 반대로 빼어나지 못한 개인들이고 보면, 정부가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하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고 해도, 그런 정부는 빼어나지 못한 개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지 않을수 없겠다. 우리가 우리를 의식하는 개인들을 중요시하는 까닭이 여기에있다.

메아리

啞器說

劉榮鍾【編輯委員】

「말의 경제」라는 표현을 가끔 대한다. 언어생활의 절약과 생산성을 뜻하는 것이려니, 하는 짐작이 간다. 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의도도 돋보인다.

말은 무진장하다. 삶의 大河처럼 도도히 흐른다. 그렇다고 함부로 헤프게 써버리면 그 값어치가 메마른다. 바르게 아껴써야 빛이 난다. 말의 덤핑이나 인플레는 경제현상에서와 똑같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된다. 실속없는 이야기는 안함만 못하다. 공연히 피로만 가중 시킨다.

소련의 안드로포프는 미·소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생산적일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생산적이라는「말의 함축」을 짚어 보기 어려우나, 빈말만 오고 가는 대좌는 않겠다는 속셈은 분명한것 같다.

정치의 세계에선 말이 생산성과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허한 소리가 아닌 확실하고 구체적인 말들이 나와야 결실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말의 경제에 생각이 닿으니 조선조 정조때 학자인 順菴 안정복의 啞器說이 귓가에 맴돈다. 그줄거리를 더듬어 소개 한다.

順菴이 고향에서 서울로 다니러 왔을때 일이라고 한다. 하루는 상가를 지나가는데 한 가게에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 진열되어 있었다. 윗모양은 둥그렇하고 밑바닥은 펑퍼짐한것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속은 텅 비었고 꼭대기에 가느다란 一자 구멍이 뚫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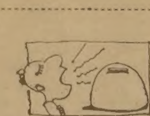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라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벙어리통이라는 간단한 대답이 나왔다. 무슨 말인지 의아해서 다시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답변은 또 마찬가지—.

누구와 말장난을 하는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 무슨 대답이 그러냐고 역정을 내면서 야단을 쳤다. 심부름꾼은「감히 내가 장난으로 그럴수가 있겠는가. 물건이름이 그래서 그대로 부른것뿐」이라고 간곡하게 설명했다. 順菴은 그 이유를 더 따져보았다.

「이 그릇은 입이 있으나 말을못하므로 벙어리통이라고 한다. 여염집 아이들이 이것을 사서 돈이 생기는대로 집어넣는다. 가득 채워진 뒤에야 통을 부숴 돈을 꺼낸다. 돈을 함부로 못쓰게하려는 까닭이다」 이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다.

「무릇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이 그릇뿐이겠는가…. 병과 독이나 항아리도 입이 없는것은 아니나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이말을 옆에서 들은 주인이 벙어리통의 뜻을 자상하게 풀이해 주었다.



「이런 그릇이 생겨난것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위한 것이다. 두가지 가르침이 담겼다. 첫째는 사람이 벙어리통같다고 나무라는 뜻이다. 둘째는 바로 벙어리그릇 같아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다. 마땅히 말을 하여야할 입장일때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통 같다고 나무라는 것이며, 안해도 될 말은 입을 굳게 다무는것이 옳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주인의 결론은 이렇다. 「나라일을 논하는 사람이 없으면 벙어리통과 다를것이무엇이겠는가…. 또 그럴 처지에 있지도 않으면서 국정의 장·단을 말하는것도 잘못이다」

이내용은 작고한 朴鍾鴻교수의 저서에 인용된 부분을 재인용하며 간추린 것이다. 順菴의 「아기설」에 담긴 警世의 소리는 여운이 짙다.

말이란 제자리에서 들려야 제맛을 내고 바른 구실을 해낸다. 시정의 떠들썩함은 거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목청은 장마당에서, 예술인의 감흥은 예술의 무대에서 울려퍼져야 옳다.

마찬가지로 정치의 목소리가 정치의 마당에서 들려야 한다. 반드시 웅변조의 고음일 필요는 없겠다. 할말은 하고 들을 말은 들어 가는것이 사람이 밟고가야 할「말의 길」이다.

「흰 구슬의 흠은 갈아 없앨수 있지만 말의 흐름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이 詩經에 나온다. 지금은 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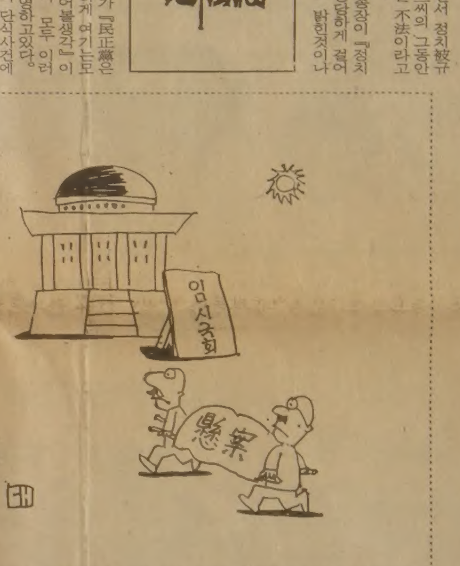
週末政局

숨가쁜 開院前夜

各黨의國會전략 週末도 잊고…

民正 "解禁案은 安定해치는 행위" 強硬

民韓 在野에 「큰선물」줄 妙策없어 고민



○…어느새 정치국회로 불리어진 제117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긴장감마저 도는 前夜의분위기속에 각 정당마다 마지막준비로 부산하다.

이번 국회의 하일라이트는 정치관계분야의 질문이 있을 14일의 국회본회의.

이날은 對정부질문이라기보다는 金泳三前新民黨총재의斷食, 학원사태등 현時局에대한 각정당의 견해를 밝히는 기회가될것으로 보여지고있다.

各黨은 저마다 정책브레인을 총동원, 時局觀을담은 질문文案을 만드느라 週末휴일도 잊고있다.

특히 관심의초점이 되고있는 金氏斷食을두고 民正黨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는데 대해 民韓黨에서는 在野와같이 민주화작업의 하나로 보는등 엇갈린視角差를 보이고있어 이번국회에서 어떻게 投影되고 조정될지 주목된다.

民正黨은 異例的으로 6월국회를 「정치국회」로먼저 규정하고나선것은 金泳三씨의 단식등으로 浮上한 在野勢가 野圈, 특히 民韓黨을 「정치적 코너」에 몰아넣는등 野黨性을 자극하고있어 국회라는場內에 場외의소리를 흡수하자는 의도를 갖고있기 때문. 따라서 民正黨은 직접 在野勢를 공격하면서 이체제에 참여할 야당이 在野와 같아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고있다.

民正黨이 10일의 원내대책회의에서 『民正黨은 在野의 소리보다 제5공화국에 참여하고있는 정당과政派의 의견을 존중하며 현政局의 主役이 과연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해야한다』고 한것은 이를 잘말해주고있다.

이렇듯 民正黨은 在野에 비판적 斜視를보내면서 在野에서불어오는 外風이 民韓黨을 자극할 경우 5공화국의 정당체제가 혼란에 빠질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그래서 야당도 「정치국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 在野에 놀아나지않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기바라는 것이다. 李鍾贊총무는『이번 국회는 상당한정치적 의미가 있으며 또 많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면서『야당도 정정당당하게 제5공화국 同參의 논리속에서 모든 문제를 거론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있다.

또 尹碩淳사무차장이『이번에 民韓黨으로서는 정치적 生死의 고비라고본다』고 말한것과 金瑢泰대변인이 『모든 문제가 제도圈안에서 처리되어야지 場外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것도 같은 취지.

이와함께 民正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식사건의 사실규명에 야당 못지않은 자세를 보이면서 정치被규제자인 金泳三씨의 그동안의 정치활동을 不法이라고 규탄할 태세.

權翊鉉사무총장이『정치大道를 정정당당하게 걸어나가겠다』고 밝힌것이나 許淸一부총무가 『民正黨은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모든문제를 물어볼생각』이라고 말한것이 모두 이러한 所見을 반영하고있다.

그래서 金씨의 단식사건에 대해『단식의 경위를 밝혀라』『軟禁을 했다가 해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질의도 대정부질문에 포함시킬 계획.

民正黨이 이같은 질문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은 金씨가 정치被규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하여 연금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정부측 답변을 얻어낸후 이를 바탕으로 金씨의 政治활동 위법성을 비판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래서 11일저녁 서울시내 P호텔에서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 尹碩淳사무차장, 金瑢泰대변인과 非경제분야 질문자인 李漢東의원이 모여 질문내용의 草案을 잡는 자리에서는이러한 強硬내용이 많이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民正黨은 또다른 큰 고민을 하고있는것같다. 일단 在野가 목청을 높인 이상 在野와 뿌리를 같이한다고 생각해온 民韓黨으로서도 自救를 위해 목청을 높이지 않을수 없을것이고 따라서「목청競爭」이 과열될 경우 예상치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한 모당직자가『이번 국회에서 民韓黨이 在野를향해 큰소리칠수있는 선물을 주어야할 터인데 妙案이없다』고 실토한것은 고민을 그대로 나타낸것.

그선물보따리로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것이 정치被規制者 解禁案의 처리이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다는것이 당직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李총무가 『解禁案을 불쑥 내기만한다면 이는 정치공세라고볼수밖에없다』며「先對話」를 주장한것이나 尹차장이 『解禁문제는 이미 1단계 解禁조치가 있은 상황에서 民韓黨에만 꽃다발을 안겨줄수 없지않느냐』고 말한것도 어려운 民正黨의처지를 설명한것이다.

결국 民正黨은 이번임시국회기간동안 야당과의 막후접촉을 통해「뭔가 줄듯한 제스처」를 계속취하면서 그동안 禁忌로 해왔던 모든 정치문제를「정치국회」답게 한번 거론하는선에서 매듭을 지을 눈치이다.

○…국회를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정당은 民韓黨인것 같다.

金泳三前총재의 斷食으로 짊어지게된 이 고민은 民韓黨이 在野와같은 뿌리라는 원천적인 관계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치권 밖에 있는 在野의 움직임과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民韓黨은 스스로의위치를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되었고 이러한 連路에 대한 고민은 결국 이번국회를 그냥넘길수는 없다는 의견들이 적지않은 것.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4월 임시국회이래 처음으로 열린 10일의 民韓黨의총에서 드러난 창당이래 보기드문「당내 底流」를 집약적으로 나타냈다.

거의 風土病化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제쳐두고「과연 이시점에서 전통야당으로서 제기능 발휘는 다했는가」,「체제안에 참여한 세력으로서 자학만 하고 눈치만 볼것인가」등 自省의 몸부림으로 시종했다.

특히 柳致松총재의『정부·여당은 학원사태와 金前총재가 斷食을 중단하고 있는 현시국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있다』는 현실진단은 바로 당내의 지배적 분위기다.

高在淸부의장도『만일 이번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경우 민심은 이반 정국불안을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少壯派의원 일각에서는「難局」이니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民韓黨은 이런 분위기에서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 판단아래「민주화 작업」이라는 창당 이래의슬로건을 이번국회에서 실감나게제기하고 정부·與黨으로 무엇인가를 얻어 내겠다는 다짐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被규제자의 解禁을 들고나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보장이라도받아 내겠다는 것.

물론 解禁이 곧바로民韓黨에 가장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 위기의식이 없는것도 아닌듯.

때문에 民韓黨은 차제에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자리를 굳히겠다는 心機一轉의 자세에서 종전과는다른 야당의 역할을 해나가보겠다는 분위기다.

10일의 의총에서도 나타났지만 특히 소장파의원들은 강도높은 自省의소리들을 連發하고있다.

이러한 黨內의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해 民韓黨은 대정부질문자로 民正 국민당과는 비중이 다른 辛相佑부총재를 지명했고 현안정치문제에 대한 黨內소리를 종합 정리할 기초위원으로 睦堯相 洪思德 朴寬用 金文元의원등 소장그룹에게 맡겼다.

○…이번국회의 핫이슈가 金泳三씨 斷食문제로 굳어지자 국민당은 民韓黨의 눈치를 슬금 슬금 살피면서 野黨으로서의 행동방향설정에 역시 어려움을느끼고 있는듯한 인상.

10일상오 열린 대책회의에 이어 11일상오의 의원총회에서도 金씨 斷食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치현안을 이번 국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야한다는 논의를 하면서도 強度를 어떻게잡아야할지 고민하는 흔적이엿보인다.

그러나 국민당은 같은야당의 입장이면서도 在野와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있지 않기때문에 民韓黨이 갖는 고민의 수준에는 미치지않는게 사실이다.

在野문제를 解禁과 관련시켜 정치공세를 취하기로 방침을세운 국민당은 행여 論攻의 초점을흐릴세라 당초 이번국회에 제출키로했던 西海岸자원비축기지 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안및 농촌근대화 촉진법안과 각종공휴일 재조정 전의안등의 제출을 유보한다는 쪽으로 黨論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11일에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결론은 다소 自制하는듯한 인상.

즉 이날 議總은 언론기본법의 개정안과 전면해금안을 제출한다는데는 異見이 없었으나 소위 학원사태, 金씨斷食보도문제등 최근의 사태에대한 책임추궁을위해 관계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내도록하자는 議總의 強硬분위기는 결국 총재단의 결정에따르기로 한걸음 후퇴했다.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뎅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게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CHARGEX V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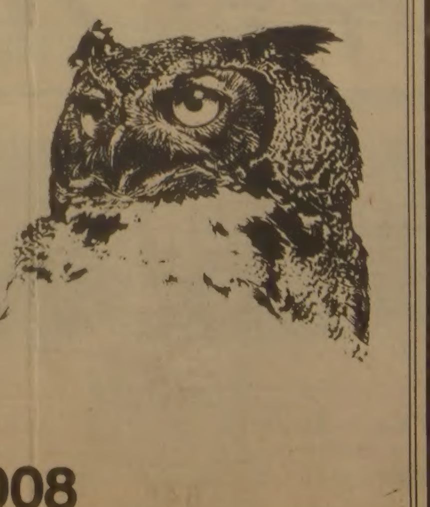
□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자연의 소리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133개의 완전한 놀이처.

온타리오 주립공원들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lan Pope,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Ontario

자세한 문의는 965-4008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컴퓨터 · 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食生活개선을 위한 캠페인

한국일보
특집판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잃어버린 營養을 찾자

젊고 오래산다는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읍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절대식량확보문제가 풀려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런 꿈이 현실화될 소지가 열렸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영양은 풍요속의 결핍, 결핍속의 과잉을 낳습니다.

한국일보사는 82년에 이어 『건강에 이르는 균형적식생활』, 『賦存식생활자원의 최대활용』, 『잃어버린 영양의 발견』에 초점을맞춰 앞으로 6개월간 매주일요일 특집판에 건강한 식생활기사를 연재할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빼대있는 동네로 불리는 장수마을 충청북도 보은군내북면 도원리。

◇왕성한 식사와 일정한 운동은 건강과 장수의 필수요건이다。사진은 강원도원성군산내면서곡리의 81세의 노인인 具만성노인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모습。

長壽마을의 敎訓

경남南海文巷里 · 강원原城瑞谷里 · 충북報恩桃源里

海産物뿐… 肉類는 구경못해
감자·옥수수·고구마가 主食
보리밥·산나물 먹고도 건강

長壽마을은 부지런하다. 아마도 우리나라 제1의 장수마을로 꼽힐듯한 경남 남해군설천면文巷里주민 4백여명은 6월의 둘째주 어느날 기자가 동네를 찾았을때 온통 동네를 비우고 있었다. 학교간 어린이들을 빼고는 모두들 밭으로 논으로 일나갔던 것이다.

80이 넘은 老人들도 못자리 물고를 보기위해 다 집을 나섰고 점심때가돼 돌아오는 老少동민들의 손에는 크고작은 농기구들이 모두 들려있었다.

강원도 原城郡板富面 瑞谷2里의 장수마을도 마침 기다리던 비가 한줄기 퍼부은뒤여서 동민들이 하나같이 어울려 모심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또다른 장수마을인 충청북도 報恩郡内北面桃源里 주민들은 마침 이동네 최고령자인 朴씨할머니(92)의 喪을당해 주민 半半씩 喪家와 들판을 나눠 흩어져있었다.

도원리는 53가구 2백30명인구에 60세이상老人이 45명, 이중 70세이상이 18명이다. 강원도瑞谷里는 89가구 4백80명 인구에 60세이상이 65명, 이중 70세이상이 40명이며 80세이상도 6명이나 된다.

瑞谷2리는 1백세가 넘은 高씨할머니가 지난4월 별세해 올해 96세인 趙주연할머니(96)가 최고령자가 됐다.

老人學의 세계적권위인 美남가주대학(NSC)교수 허버트·드브리스박사는 장수의 조건을 7개로 규정했다. 첫째 적절한 영양식, 둘째 충분한 수면, 세째 정규적인 운동, 네째 적당한 음주, 다섯째 禁煙, 여섯째 긴장의 최소화, 일곱째 알맞은 체중.

드브리스박사는 만일 이7개조건을 잘 관리한다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1백~1백20세까지 늘릴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수명은 원래 1백20세로 정해진 것이며 그 첫시행대상자였던 모세는 末年까지 청년같은 정력을 지니고있었다』면서 올바르게만 살면 귀도 먹지않고 눈도 어둡지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제수명을 누릴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것이 『적절한 營養食』인지에 대해서는 꼭 의견이 통일돼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늙는 이유를 캐결과 체내에서 생기는 遊離基(free radicals)란 분자가 老衰의 주범이라는것을 밝혀냈다.

이 유리基는 원인모를 어떤 衝擊에의해 생성되는 극히 불안정한 分子로 체내의 어떤세포라도 맹렬히 공격해서 결국 신체의 老化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遊離基는 영양부족상태이거나 운동부족, 지나친흡연등의 경우에 왕성한 활동을 한다. 대신 적절한 영양분섭취, 운동, 적당한 수면등에는 弱하다.

최근에는 체내에는 遊離基를 대응하는 過酸化分子變位효소(SOD)라는 특수효소가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아직 어떤 경로를 통해 SOD가 생성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보다 SOD보유량이 많으며 따라서 유리基의 정상분자파괴행위를 크게 저지한다는 것이다.

遊離基의 老化촉진설에따라 연구된한 결과는 비타민보완론. 세계의 학연구진들은 비타민 A、B、E가 이 유리기를 대항하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섬유질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큰 힘이 있다는것을밝혀낸것이다.

또다른 연구는 광물성셀레늄이 세포보호효과를 갖고있는것을 밝혀냈다.

세계의학계는 遊離基論이후『老化는 치료할수있는 病의 일종』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비타민有効論, 광물질유효론,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루타민(조미료성분) 마그네슘·칼슘등의 효과설이 차례로 나왔던 것이다.

이런 물질들은 결국 영양분이 풍성한 과일, 생선, 육류등을통해 체내에 흡수되거나 강건한 체력을 바탕으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것. 베스트셀러판인 長壽法(Live Long Now)을 쓴 네이단·프리킨은 『건강하게 오래살려면 末年까지 왕성한 식사를 포기하지말라』고 권하고있다.

유리基에 대항할 능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강력한 영양이 바탕이되지않으면 안되며 이를위해서는 『올바르고 왕성한 식사』를 나이들어서도 유지해야 된다는것이다. 왕성한 식사는 결코 過食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南海郡文巷里는 전체주민 4백80명에 70세이상만 56명, 65세이상을 합치면 75명이나 된다. 이동네가구 89호가 거의 대부분 老부모를 모시고산다.

文巷里이장 鄭應道씨(34)가『서울서 먼 손님이 왔다』면서 점심참에 돌아온 老人들을 동네 새마을회관에 잠깐 모셨다. 마을이 바다를 끼고있어 누가 잡든지 바다물고기를 낚시질해와 간단한 음료파티를 벌였다.

이 동네의 최고령자인 柳性寅씨(94)와 독립유공자 鄭夢虎씨(86)부부도 나왔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마련한 전어회를 즐거운 표정으로 섬큼 섬큼 들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地官노릇을하는 柳노인은 요즘 패철(나침반)이 고장나 새것을 구하는 중이라면서 『먹는것은 그저 아무것이나 먹는다』고 말했다.

모심기에서 돌아온 70노인들의 밥그릇도 젊은이의 것이나 다름없이 수북하게 밥이 담겨있다.

가끔 文巷里에 와보는 郡공보실 박상택씨는 『文巷里 주민들이 해산물과 산나물을 열심히 먹어 장수하는것같다』고 말했다.

낚싯대만 던지면 전어, 병어, 고등어가 줄줄이 몰려나오는 낚시터 요지가 지척에 있고 바로 뒷담을맞대고있는 觀音山에는 산나물이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주민 鄭弘道씨(36)는 『文巷里는 예로부터 산나물, 해산물이 풍성해 반찬걱정한일은 없다』고 말했다. 남해읍 관음산의 산나물은 멀리 남해읍 사람들이 나와 뜯어갈 정도.

닭이나 돼지같은 작은 가축은 생일같은때에 가끔 먹지만 쇠고기는 멀리 읍에서 들여와야 하므로 1년에 한두번 먹을까말까하다.

文巷里의 70이상노인의 對전체주민비율은 11.6%, 65세까지를 따지면 15.6%나 된다.

1980년의 경제기획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60세이상 老人비율이 전인구의 6.37%, 60세이상 노인비율이 가장높은 곳은 충청북도로 8.2%, 가장 낮은곳은 부산의 3.7%로 되었다.

같은 통계의 市·邑·面단위분류를 보면 市단위의 60세이상 老人인구가 전체의 3.38%인데 비해 面단위는 60세이상이 9.5%로 2배이상 높은 편이다.

문항리의 경우도 『大學나온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버려』 자연히 老人비율이 높아진점은 있다. 그러나 70세이상의 父母를 거의 모든가정이 모시고 사는 동네는 전국을 돌아봐도 이동네만 한곳이 없다.

『文巷里는 옛선비가 글읽는 소리가 저자같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요 굶어도 자식공부는 시키는 전통이 있고 효도하는 마을입니다』고 농업협동조합장 鄭承孝씨(50)는 마을을 자랑했다.

늙어서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에 효도하니 건강하고 長壽하는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진양鄭씨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마을은 예부터 長壽者들이 많았다는것.

이 마을은 南海대교가 놓이기전까지만 해도 이웃도시인 진주나 하동이 오늘의 太平洋건너도시만큼이나 멀었다. 그러나 교육열은 深山臨海마을답지 않게 강해 동네에는 지금 70이넘은 사람중 진주농림고등학교 졸업생이 2명이나 있으며 90호가 못되는 마을에서 서울大입학생만도 18명이나 생겼다. 이중 3명은 박사가됐다.

南海郡文巷里, 報恩郡桃源里, 原城郡瑞谷里등의 세장수마을이 갖는 외형적인 공통특징은 山水가 좋다는것.

瑞谷里는 白雲山을 끼고있으면서 푸른숲따라 흐르는 藥水가 이동네의 자랑이 돼있고 桃源里도 양옆으로 둘러싼 산이 병풍처럼 동네를 감싸안고있다.

맑은공기, 좋은샘물을 주는 장수마을의 뒷산들은 모두 훌륭한 山菜채집장이다.

지금은 좀 살림이 넉넉해져 시장에서 이것저것 반찬거리를 사오지만 장수마을들은 오랫동안 뒷산의 산채뜯기로 요즘의 장보기를 대신해왔다. 산채가 많은 봄·여름은 풋것으로 먹고 산나물이 없는 겨울은 봄·여름철에 뜯은 산나물을말려 이용해왔다.

강원도 瑞谷里는 옛날에는 땅이 척박했다. 지금은 전수지를 만들어 沃土를 일궈 놨지만 10년전만해도 이 지방의 땅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나 심을정도의 밭일색이었다.

『글쎄요. 감자가 좋은건지도 알수 없지만 지금 70, 80이 넘은 老人네들은 거의 감자, 고구마, 옥수수같은 것을 주식으로 삼아왔을 정도였읍니다』라고 瑞谷里이장 郭國元씨(40)는 말하면서 마을 습관이돼서 그런지 지금도 서곡리는 감자나 옥수수같은것을 많이 먹는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보은군도원리도 山菜많은곳으로 소문난 지역. 물이 좋아 예부터 술맛이 좋았으며 그 옛날 3南도로가 마을앞을 지날때는 막걸리한잔에 풋나물한접시쯤은 거저주던 인심좋은 마을이었다.

桃源里는 한때 집안에 판 단독우물을 사용하면서 위장병환자가 가끔 생겼으나 새마을운동으로 옛날부터 사용하던 마을뒤켠의 「찬샘」물을 공동수도로 연결한뒤부터는 無病長壽마을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이동네의 유지인 李英遠씨(52)는 말했다.

南海郡文巷里는 뒤쪽이 해발5백m쯤의 觀音山이고 앞은 年순이익 7천만원을 올려주는 바다양식장이 있는곳. 바다와 산쪽에서 다같이불어오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손의 가슴을 탁 트게해준다.

식사량을 얼마로 할것인가에대해서는 正論은 없지만 대체로 『약간量이 차지않는듯한 線』이 건강식사량이라고 알려져있다. 日本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따르면 쥐의 경우 正量의 60%만 음식을 주었을때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60%線이 인간에게 꼭 적용될수있다고는 볼수없으며 다만 명백한것은 過食은 『건강의 敵』이라는 것이다.

정규적인 운동이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연구는 다각도로이뤄져있다.

美國의 한연구팀은 편두통환자와 만성신경과민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요법과 「걷는요법」을 비교실험한 결과 환자를 걷게하는것이 약을 먹이는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잠은 충분히 자야한다. 成人남자는 7시간에서 7시간半정도, 여자는 7시간보다 좀 모자라게 자는것이 알맞은 수면시간인것으로 연구돼있다.

담배는 어떤 경우에도 해로우며 다만 음주는 체력에 알맞는 적당량이면 禁酒하는 경우와 차이없이 건강을 지킬수있는것으로밝혀져있다.

장수마을은 대개 姓씨마을로 구성돼있어 도시형경쟁에서 오는 긴장족적이 없으며 영양, 수면, 운동등에서 거의 전통적으로 과학적 건강법을 이어받아온것으로 보인다. 【鄭逸和기자】

初老같은 9旬부부

◇전국 최장수 부부일듯한 鄭夢虎, 金씨부부。69년동안 함께 건강하게 살아오고있다。

이팔청춘(16세) 꽃피는 나이에 한살위인 신랑 鄭夢虎씨에게 시집와 69년을 보냈다.

전국최장수 부부임직한 鄭夢虎씨(96·독립유공자)와 부인金씨(95)는 70년에서 한해모자라는 69년의 긴세월을 부부로 살아오면서 시골풍의 우스개소리를 잊은일이 없다.

『아이구, 딱 지업소. 영감이 독립운동할때 끌려가 2년간 감옥생활을할때는 보고싶기도 했지만 70년을 내리 사니 뭐 더볼게 있어야지』라며 金씨 할머니는 老남편을 힐끗 쳐다본다.

鄭노인은 따라 빙그레 웃으며 『허 참』하고 헛기침을 몇번할뿐. 아직 老부부는 장난기남은 初老처럼 건강해 보였다.

90평생에 많이먹은 음식은 동네앞바다에 흔한 굴, 바지락, 전어, 미역, 고등어등의 해산물과 뒷산의 山菜.

지금은 漁村계가 형성돼 앞바다를 동네에서 공동관리하지만 그래도 반찬거리를 위해 초개를 잡는따위의 낚시질을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유가있다.

肉食은 『살림이넉넉지못해』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현재 서울大농대 교수로있는 장남昌柱씨는 『아버지가 자식공부시키느라고 논까지팔아버려 평생을 고기한번 제대로 사 잡수시지 못했다』면서 가끔 서울에 올라오시면 고기를 해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老부부는 고기를 해드려도 맛있게는 먹으나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鄭老人의 말로도 文巷里가 해산물이 풍성해 구태여 쇠고기 사먹을 생각은 안했으며 경사날때잡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정도로 만족해왔다는 것이다.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 않고 동네에서 손쉽게 얻을수 있는 것이면 즐거이 먹어왔지만 過食을하지 않는다는것과 먹은만큼 움직여야한다는 조건은 철저히 지켜왔다.

金씨할머니는 남편이 평생에 배탈을 만난일이 없다면서 아마도 항상 양보다 적게먹는 습관때문에 그런것이 아니었겠느

69년偕老에 습성도 같아져… 過食피하고 일거리는 찾아서

냐고 말했다.

술은 두어잔마시나 한번도 취하도록 마신일은 없다. 金씨할머니는 『남편따라 습관을 같이하다보니 나도 장수했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먹고 마시는 일, 틈만있으면 무슨일이든 해야한다는 자신들의 태도는 엄하게 지켜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대한 엄한 규칙에비해 他者에대한 태도는 퍽 너그럽고 헌신적이었다는것이 주위사람들의 평가였다.

鄭夢虎씨는 3·1운동나던때 雪川面면서기로 있었다. 그는이웃 河東邑에서 가져온독립선언서를 面사무소등사기로 몰래 수백부 만들어 온 동네와장터를 다니면서 뿌렸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이 설천면이 가장 먼저 독립만세를 부른곳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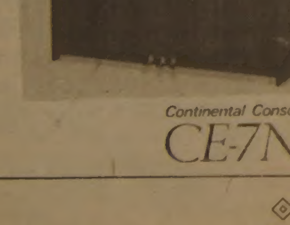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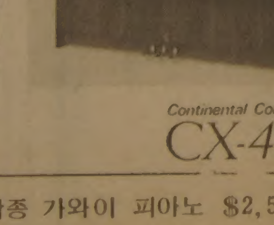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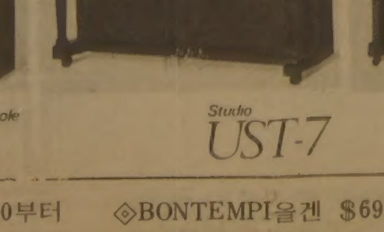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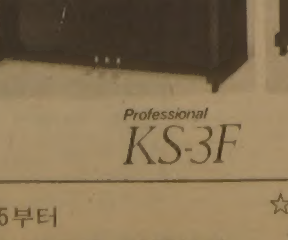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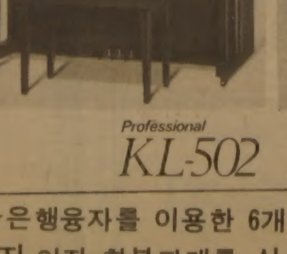
鄭夢虎씨는 뒷날 日警에의해 진주경찰서로 연행돼가 2년형을 받았다. 노인은 지금도 새까맣게 불탄고문자리가 남아있는 다섯손가락끝과 송곳에 찔려 허연 흉터가된허리춤을 내보이며 『왜놈들은 지독하다』고 말했다.

2남3녀를 두었고 큰아들昌柱씨(50)는 서울大, 美캔저스大를 거쳐 현재 서울大 농대교수로 있다. 鄭昌柱박사에 의하면 그가 대학에 입학했을때 아버지는 넉넉지도 못하던 논을 선뜻 팔아주며 『그래 공부를하는것이 제일이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老人은 아직 몇마지기의 논을 붙이고 있다. 힘든일은 남에게 맡기지만 『사람은 죽을때까지 움직여야한다』는 철학을 지키는 것이다. 鄭老人부부는 가끔 서울로, 부산으로 자녀들 댁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방학때 시골오는 손자·손녀기다리는것이 더 큰 樂이라고 말했다.

老부부의 얼굴에 비치는 『남에게는 厚하고 자신에게는 嚴한』 기품이 아마도 보다 큰 장수비결인듯했다.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한국일보 (특집판)

오늘 4強 神話에 도전하는 青少年대표팀

「리틀월드컵」 最大異變…8強戰도 큰관심
"주먹만 센줄알았는데…" 멕시코팬들 熱狂

한국의 8강진출은 제1회대회(77년·튀니지) 우승국인 소련과 준우승국멕시코의 예선탈락 쇼크와 함께 최대이변으로 꼽히고 있다.

멕시코의 기자들과 국제축구계 인사들은 아시아의 축구수준이 워낙떨어져 있기때문에 한국을 눈여겨 보지않았다고 실토하면서 한국에대해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吳完建단장, 朴鍾煥감독은 8강진출에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같았으나 기자는 예선 A조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조마조마 했다. 특히 A조에는 자타가 우승후보로 꼽은 스코틀랜드와 주최국 멕시코, 그리고 체격이좋고 힘의 축구를 구사하는 濠洲가 도사리고 있어서 예선통과는 바늘구멍에 비유될 수있었다.

濠洲 콤플렉스를 깨끗이 씻은것도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번번이 濠洲의 힘과 신장에 눌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濠洲의 기를꺾어 청신호를 비쳐주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대표로 출전한 中共도 예선C조에서 선전 했으나 골운이 없어 제2차전서 체코에게 3-2로 패해 탈락하고 말았다.

아뭏든 이곳에모인 국제축구연맹(FIFA)관계자들은 『만약한국이우루과이와의 8강전서 승리한다면 세계축구의 놀라운 화제가 될것』이라고 말하면서 81년濠洲대회때 약체 카타르가 영국을 2-1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갔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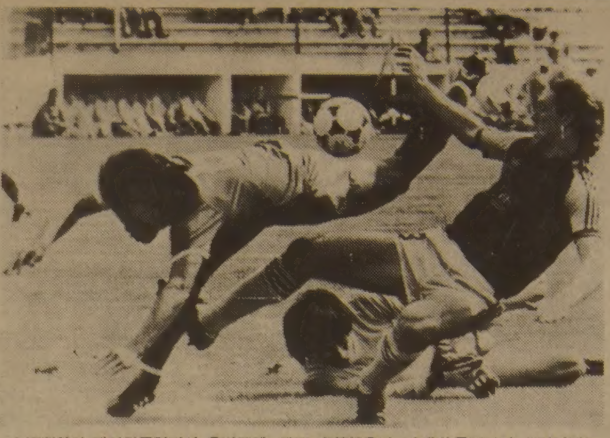
여러나라가 청소년대표팀전력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뮌헨과 멕시코월드컵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네덜란드는 특히 전력강화에 박차를가하고있다. 브라질과함께 예선D조서 8강에 오른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청소년선수들을 잘키워 86년 월드컵우승을 노리고 있다. 네덜란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코치인 키스·리히베르스씨를청소년팀감독으로 특별발탁, 코카콜라컵을 차지하려고벼르고있다.

예선관문을 뚫은 8강은 한국을 비롯하여 우루과이 브라질 체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폴란드 스코틀랜드. 유럽서 4개팀, 남미서 3개팀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오세아니아지역 7개국가운데 한국만이 8강에 올라 세계축구가 유럽과 남미에 의해 主導되고 있음이 이번 청소년대회서도 다시 드러난셈이다.

8강전이 펼쳐지는 몬테레이는 멕시코시티로부터 1천여㎞떨어져 있는데 한국선수단은 10일하오 몬테레이에 도착하여 마지막 컨디션을 다듬고있다.

한국선수들의 컨디션은 대단히 좋으며 높은 사기를 보이고 있다.

朴鍾煥감독은 12일의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멕시코 濠洲와의 대전때처럼 기동력 있는 쇼트패스로 부지런하게 뛰면 우루과이와도 해볼만하다. 나는 내가 데리고있는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을 굳게믿고있다』고 비장한 결의를 보였다.



◇濠洲와의 예선최종경기서 후반교체 FW 李基根⑤이 金豊柱골키퍼가 쓰러져있는 위기에서 濠洲선수의 공격을 몸으로 막고있다。【멕시코市=聯合】

멕시코 高原에 "蹴球코레" 선풍

멕시코시티=安奉煥특파원

『코레!코레』 해발2천2백20m가 넘는 멕시코에 한국 선풍이 일고있다. 제4회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예선초반에는 큰관심을 끌지못했으나 홈그라운드의 멕시코를깨고 濠洲마저 물리치고 8강에 진출하자 다혈질의 멕시코 팬들은 『주먹(프로복싱)만 강한줄 알았는데 축구수준도 놀랍다』며 한국팀을 칭찬했다.

인구 6천5백여만의 멕시코는 스페인계 백인(10%) 인디언계(25%) 백인과 인디언 혼혈(60%)로 구성, 국민 95%이상이 가톨릭 신자인데 축구와 프로복싱이 단연 인기종목으로 각광 받고 있다.

70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멕시코는 오는 86년월드컵대회를유치하는데 성공, 이미 대회 개최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번 세계청소년대회를 86년 월드컵 리허설로 열의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 축구팬들은 그들의 청소년팀이 최소한 4강까지는 무난히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단치 않게 생각했던 한국팀에 패해 예선탈락의 고배를 들자 일제히 코칭 스태프에 분노를 폭발시키며 對濠洲전에서는 열렬하게 한국을 응원했다.

멕시코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은 토루카 잔디 운동장서 한국선수들이 濠洲를 제친후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꿈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감격을 느껴본 때가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였다.

스타調鍊師 朴鍾煥감독

"하면된다" 스파르타式 훈련
짧은패스·攻擊的축구 구사

우승제조기·조련사·승부사. 朴鍾煥감독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이다. 春川高·慶熙大를 거친 朴감독은 지난 60년 청소년대표선수로 발탁, 제2회 아시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63년 대표팀 2진 풀백으로 활약했으나 3년 뒤 경기도중 무릎을 다쳐 현역에서 떠났다.

단국고교 코치겸 교사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 10년간 고교감독을 맡았다.

76년 창단된 서울市廳을 맡으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스카우트에 탈락된 무명선수들로 구성된 서울市廳을 창단 첫해부터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으며 78년 춘계 실업연맹전에서는 海軍과 함께 공동우승으로 이끌었다.

서울市廳은 창단 5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10번 우승했으며 81년 방글라데시 골든컵 대회에서도 우승했다.

무명선수를 스타플레이어로 만들어낸 비결에 대해 그는 『모든 생활을 축구에 바치고 축구에만 미치는것』이라고 말한다.

李台熙·李太燁·崔基奉·金昌浩·朴潤基등이 朴감독의 지도로 다듬어진 선수다. 강한 정신력 없이는 견뎌낼수 없을만큼 철저한 강훈련을 시킨다. 일단 훈련이 끝나면 친형처럼 자상하게선수들을 보살피는 다른면이었다.

지난해 12월 효창구장옆 여관에서 『두번씩 실패할수는 없다』며 선수들과 함께 지냈다. 81년 호주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강호 이탈리아를 4-1로 꺾어 이변을 일으켰지만 예선서 탈락했던 아픔을 두번다시 당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해온 그였다.

한국인의 체질과 성격에 맞는 축구를 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진 朴감독은 숏패스작전을 최대무기로 삼고있다.

朴감독의 강점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선수들은『선생님의 말만 들으면 이길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고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서 2차례씩 覇權…한때 南美축구의 先鋒將

축구狂國 우루과이

한국이 12일 새벽 8강전서 격돌하게될 우루과이는 멕시코 팬들로부터 가장많은 박수를받고 있는 팀이며 우승후보로 꼽히고있다.

우리로서는 힘겨운 상대가 아닐수없다.

우루과이는 이대회 B조 예선서 2승1무로 1위를 차지,참가 16개팀가운데 가장먼저 8강진출권을따냈다。1차전서 미국에 3-2로이기고 2차전서는 강호폴란드를 3-1로 물리쳤으며 약체 아이보리코스트와의 최종경기서는 주전선수 6명을 빼고 여유있는 경기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우루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낀 조그만 나라이지만 축구에 관한한 일찍부터선진대국행세를 해온명문。청소년 대표팀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으며 짧은패스에의한 속공과 개인기,패스웍이 대단히유연하다.

우루과이의 득점원은 국내1부리그 챔피언팀인 나이오날 (몬테비데오) 소속의 카를로스·아길레라。아길레라는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북과 장구를 함께쳐 후반서 2골을 올렸다。살라자르와 오른쪽 날개인 루벤·소사를 포함하여 우루과이공격의 삼총사로 불리고 있다。우루과이 선수들의 돌파력은 위협적이나 수비가 강하고 태클이 거친상대에게는 제대로 힘을 쓰지못하므로 한국은 對우루과이 경기에서는 濠洲와의 경기때보다 더 수비를 두텁게하고 밀어붙여야 승산을 내다볼수 있다.

우루과이는 1900년에 협회를 창설,24년만에 올림픽서 우승을 차지했고 1928년 올림픽서도 연속 우승했다。남미축구를 처음 세계에 선전한것은 브라질이 아니고 우루과이였다.

우루과이는 1930년 제1회 월드컵대회를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개최,10만관중 앞에서 아르헨티나를 4-2로 꺾고 최초의 월드컵을 차지했다。1950년 브라질서 열린 제4회 월드컵대회서는 브라질을 격파하고 우승,지금도 축구계의 화제가 되고있다.

우루과이축구는 60년대이후 지난날의 명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세계클럽선수권을 차지한 페나롤같은 명문팀 선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있다。大邱의 인구에 미치지못하는 수도 몬테비데오에 수용인원 9만의 대형스타디움이 있고 2만명이상 입장할수 있는 축구전용구장이 7개나 된다。축구에 대한 우루과이의 열기를 보여주는것이다.

한국이 우루과이와의 경기서 승리한다면 세계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것이 틀림없다。2년전 濠洲대회서 이탈리아가 한국에 의해 쓰러졌을때 유럽에서는 『믿을수 없는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8強快擧 18人의 主役들

▲GK 金豊柱(대우) 19세, 190cm, 76kg. 판단이 정확하며 공중볼처리가 좋다. 陽谷綜高 출신.

▲GK 李文榮(동북고) 18세, 180cm, 68kg. 대담차분하며 판단력이 뛰어나다. 東北中출신.

▲FB 金判根(고려대) 17세, 175cm, 65kg. 노련한 두뇌플레이어로 철벽수비를 자랑. 錦湖高졸업.

▲FB 文元根(동아대) 20세, 172cm, 65kg. 정확한태클이 특기. 투지가 좋다. 全南體高 출신.

▲FB 盧仁佑(고려대) 20세, 179cm, 73kg. 게임운영이 노련하며 슈팅이 좋고 정확. 錦湖高 출신.

▲FB 兪炳玉(한양대) 19세, 177cm, 70kg. 1백m를 12초F로 주파하는 준족. 馬山中央중출신.

▲FB 張政(아주대) 19세, 178cm, 72kg. 순발력과 헤딩이 좋으며 1백m를 12·8초에 주파.

▲FB 崔益煥(서울시청) 19세, 175cm, 68kg. 주력이 빨라 1대1 대결에 강하다. 龍文高 출신.

▲HB 金鍾建(서울시청) 19세, 172cm, 67kg. 유연성좋고 시야가 넓어 볼공급 잘한다. 東大附高출신.

▲HB 金興權(전남대) 20세, 170cm, 68kg. 힘과 지구력이 좋다. 全南體高 졸업.

▲HB 姜才淳(성균관대) 19세, 167cm, 65kg. 강한슈팅과 킥이 일품. 釜山商졸업.

▲FW 李太炯(한양대) 19세, 171cm, 60kg. 개인기가 뛰어나고 센터링이 좋다. 安養工졸업.

▲FW 李基根(한양대) 18세, 171cm, 64kg. 판단력이 빠르고 찬스포착이 뛰어나다. 宇信高출신.

▲FW 申連浩(고려대) 19세, 176cm, 65kg. 개인기술이 좋고 노련하다. 錦湖高 출신.

▲FW 金鍾夫(고려대) 18세, 181cm, 70kg. 슈팅력·지구력·스피드등이 뛰어나다. 中東高출신.

▲FW 李承熙(강릉공) 18세, 174cm, 64kg. 재치있고 개인기가 좋다. 춘천沼陽중 출신.

▲FW 崔溶吉(연세대) 18세. 어느 위치에서나 열할을 잘해낸다. 永登浦工 출신.

▲FW 李賢喆(동국대) 19세, 172cm, 71kg. 볼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며 슈팅이좋다. 龍文高출신.

張吉山 <1765>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25)

열 엿새 날 아침, 자비령의 길산은 산채에서 양주 통문을 받았다. 봉산에 나가있는 정탐소에서 만동이네 식구가 통문이 어제 밤에 왔다면서 전해 주고 갔던 것이다. 김기가 통문을 읽어보고나서 고개를 저었다.

『이번 일은 실제입니다. 不可以進戰 不和於戰이란 오자(吳子)의 글이 있거늘, 거병의 약속날짜에 큰 혼란이 오게 되었으니 미리 상대방에게 기미를 알려준것이나 다름없읍니다. 원래가 역성혁명이란 강대하고 기틀을 굳게 쥐고 있는 한 나라의 주권을 권모로 전격 급습하여 뒤바꾸는 일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캄캄한 그늘 속에 스스로 숨어서 해야만 합니다. 통문의 내용으로 보아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양주 인근 백성들의 동요 때문인 것같은데, 일단 수수방관 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우왕좌왕 틈을 엿보는 자들까지도 내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관가에 붙어 버릴 빌미를 주고만 것입니다. 우리가 거병 일자를 맞추어 당도하기전에 이미 관의 기찰이 시작될 것입니다. 불은 붙었으나 작은 불입니다. 맞불을 놓는지 발로 밟아 은밀히 꺼버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언제나 김기의 의견을신중하게 듣고나서 결정하는 장길산도 한참이나 망설이며 생각하다가 침통하게 말하였다.

『내가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큰 스님들께서당부하신 일이라, 식구들데리고 철원 거쳐 금화 전불산까지는 한번 가볼까하오』

그러나 김기의 반대는 완강하였다.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할일이 많이 남아 있소이다. 구월산의 참패를 돌이켜 보시우. 관군과 정면으로 부딪칠때가 아니외다. 이번이 기회였던 점은 분명하나 여환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고변이 들어갔다면 관군은 필시 요로를 끊고 복병을 묻거나 천마산술 부리나 혜음령과 같은 조군지(遭軍地)를 둘러쌀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열 엿새고 앞으로 이틀안에 급작스런 준비를 갖추어 외응할 수 있는 군사는 천군(天軍)을부르는 재주로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정히 궁금하시다면 말득이와 선흥이를 데리고 천불산수태사의 대성법주를 만나보신 연후에 말득이를통하여 기별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기간에도 갑주의 향도들이 흩어지지않고 결속된다면 일은 쪽이루어질것이며 그전에 깨어진다면 우리가 식구를 모두 데리고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령은 산채의 살림이니 깊이 생각하시오』

길산은 김기의 설명을 듣고나서 그에 따르기로 정하였다.

『좋습니다. 삼촌의 말씀대로 말득이와 선흥이 만 데리고 금화에 나가 보지요. 거기 가보아서 사정이 좋을듯 싶으면 말득이를 보내어 식구들을 동원하도록 할터이니 삼촌은 그동안 산채나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하여 장길산은 강선흥이와 장말득이를 데리고 그날 자비령을 떠났다.

길 ◇韓景職◇

<애 국 가>

1925년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의 내 동기동창중 이인선씨라는 분이 있었다. 그분은 학생시대에 특별히 운동을 잘하였으므로 그후 일본에서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모교에 체육교수로 부름을 받으셨다.

그런데 한번은 다른 학교와 축구시합을 하여 크게 승리하고 그날 저녁 선수들이 어떤 음식집에 모여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때 여러 노래를 부르는 중에 느닷없이 한 학생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니 무의식중에 모두 함께 부르고 흩어졌다.

그 소식이 일본경찰에 알려져 모두 붙잡혀가모진 매를 맞고 나왔다. 특별히 이 교수는 머리를 많이 맞아 결국은 정신이상을 일으켜 폐인이되었다. 나라가 없을 때에는 애국가 한번 부르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표주박

呑虛스님 拾골작업서 사리13顆수습 녹두색6과 비취색5과 검은색2과

○…지난 5일입적한 月精寺조실 呑虛스님의 습골작업에서 13과(顆)의사리가수습되었다.

呑虛스님의 사리는 지난 9일하오3시 다비식을가진데이어 기골식을거쳐 하오5시부터 2시간에 걸친 습골작업끝에 녹두색을 띤것이 6과, 비취색 5과, 검은색이 2과등 모두 13과가 나왔는데 제일 큰 것이 녹두알크기였으며 가장 작은것은 좁쌀만한것이었다.【江陵=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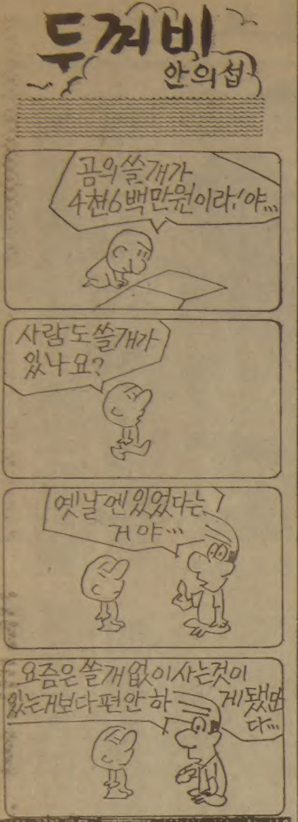
産婦人科 대기실서 만삭의 姙婦가竊盜

○…서울동대문 경찰서는 11일 만삭인몸으로 남의 금품을 훔친 金永美씨(21·여·서울城東區玉水洞)를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

경찰에 의하면 金씨는10일상오11시30분께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외래진료차 대기실에서 尹모씨(41·여·城北區敦岩1洞74)가 딸의 진찰을돕기위해 함께병원에 나왔다가 잠깐자리를 비운사이 1만5천원이든 尹씨의 가방을슬쩍해 1백m쯤 달아나다 뒤쫓아간尹씨에게 붙잡혀 경찰에넘겨졌다。

지난 3월말과 4월중순께도 서울대병원과 이대부속병원에서 같은 숫법으로 물건을 훔친혐의로 두차례 입건된바있는 金씨는 현재 임신10개월인데 경찰은 金씨가 조사를받던중 진통이 시작돼 고통스러워하자 엄살인줄 알았다가 의사로부터 분만 1~2일을 앞두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후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하고 일단 풀어주었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불붙은 體罰논쟁

敎師들, 敎育위해 「最少限」은 필요
학부모, 感情개입·관습화될 우려
梨大서 세미나

교사들의 「체벌사고」가 잇달아 터진것과 때를같이 해 11일하오 梨花女大 사범대 202호실에서 열린 梨花교우회(회장 崔淑卿·48)주최의 「학교에서의 체벌」주제 세미나에서 교직자들은 거의가 「최소한의 체벌」의 필요성을지지했고 학부모를대표한 연사는 교육에서 체벌이 반드시 최선의 보편타당한방법은 아니며 체벌을 인정하는경우 더큰 문제가 따를수있다고 반대의사를 폈다.

이날 세미나의 첫연사로 나선 梨花女大사대 朴俊熙교수는 『교육이 개인의 바탕을 최대로끌어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휘하도록하는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체벌을 포함한 처벌은 있을수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도 교육과 같은의미로 쓰이는 편달(鞭撻)이란 한자어에서 가죽끈을 의미하는「革」자가들어있고 옛날 서당에서 상투를튼 서생들이 상투끝에 끈을매 천장에달아 졸음을 쫓는등 스스로 벌을 사서받는 경우를 봐도 개인감정이 개입되지않은 체벌은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朴교수는 체벌은 즉흥적이 아닌 마음의 여유를가진 상태에서 행해져야하고 감정이 개입되지않아야하며 교육적으로 의미가있는 경우여야한다고 강조했다.

昌德女中 鄭珖順교장은 『각종 통계를봐도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은 대다수의 교사들에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학부모들 가운데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의 자극제로 적당한 체벌을 원하는 경향도있다』고 최소한의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대표한 梨花女大부속병원 정신과 李根厚교수는 『체벌이 교육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교직단체에서 추진되고있는 교권에 체벌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체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체벌이 용인될경우 관습화될 우려가 있고 ▲모든 교사들이 인격이 성숙한단계에있다고 볼수없을 진대 허용하는경우 무리를 수반하며 ▲체벌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 특수한 방법이며 ▲체벌의기준도 모호해 문제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직단체대표로 연설한 대한교련 사무차장 孫世완씨는 체벌이 사회문제화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교권보호측면에서 교육상 필요한경우 학생을 징벌할수있는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구속된지 9일만에 城東구치소를 나서는 金振榮 삼미슈퍼스타즈 감독。

金振榮감독 석방

구속 9일만에 罰金 백만원… 약식起訴

경기장 폭력으로 구속됐던 프로야구 삼미슈퍼스타즈감독 金振榮씨(47)가구속9일만인 11일 석방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朴宗烈검사는 이날 金씨를 벌금1백만원으로 약식기소,구속을 풀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상오10시 金씨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城東구치소로 보내 金씨를 상오10시20분석방했다.

尹鍾洙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은 金감독을 약식기소로 석방한것은 ▲金감독이 자신의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야구팬과 청소년들에게 사죄하여 앞으로 자숙할것을 서약했고 ▲한국야구위원회와 각구단주가 이번폭력사태를 국민앞에 사죄하며 앞으로 경기장에서 폭력을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결의를 했으며▲삼미 구단과 선수들도 페어플레이정신으로 경기장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하는등 金감독과 관계자 모두가 깊은 반성과 자숙의뜻을 검찰에 밝혔기때문이라고 말했다.

金감독은 이날 상오10시20분 베이지색 T셔츠와 감색바지 차림으로 구치소문을나와 부인 金초혹씨(46)와 삼미슈퍼스타즈 대표이사 許炯씨(55)등과 함께 金감독의 집이있는 仁川으로 향했다.

석방직후 金감독과 보도진들이 나눈 일문일답은 다음과같다.

—구속에서 석방에 이르기까지 소감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나의 지나쳤던 행동은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서울리그를 앞두고 체육인이 소신껏 운동할수 있는 환경이 부여돼야 스포츠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석방소식은 언제 들었는가.

▲오늘 아침 동부지청에서 서약서를쓸때 알았다.

—구치소에서의생활은.

▲그동안 많은것을 느꼈다. 삼미가 광주에서 2연패하던날 분발하도록 구치소에서 광주의 선수들에게 전보도 보냈다. 부모잃은 자식처럼 마음껏 싸우지못한 삼미선수들이 앞으로남은 게임에서 분발해주기바란다.

—앞으로의 계획은.

▲당분간 쉬고 싶다. 마음이 정리되는대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오늘 全國에비 기온도 떨어져

휴일인 12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것같다.

중앙관상대는 11일 전국이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전면에 들게돼 12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밝히고이에따라 기온도떨어지겠다고예보했다.

예상기온은 서울 17~22도、大邱17~25、釜山17~22、光州20~25도의 분포。

失踪어린이 4일만에 발견

野山서 심한 상처입고 빈사상태로

【順天】順天城南국교2년 金三龍군(9)이 지난8일하오5시께 학교에서 귀가길에 실종된후 4일만인 11일하오2시께 昇州郡西面鶴谷里 뒷산기슭 밤나무밭에서 오른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채 빈사상태에 있는것을 경찰이 극적으로 발견, 光州전남의대부속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이나 중태다.

金군은 이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보호자인 朱玉蓮씨(54)가 順天경찰서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실종된시간에 학교앞 횡단도로에서 소속미상의 2.5톤트럭이 어린이를 치어 차에 태우고 사라진것을 봤다는 趙松德씨(42·여)의 말에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가 金군을 데리고가 야산등지에 버린것으로 보고 인근산을 수색중 이날 사고지점에서 6㎞떨어진 곳에서 金군을 발견한것.

경찰은 사고트럭 운전사가 金군이 죽은것으로알고 버린채 도주한것으로 보고 이 운전사를 찾고있다. 【駘】

貸出싸고 돈받아 銀行支店長 구속

치안본부는 11일 모은행 남대문지점장 禹英夏씨(47·서울道峰區水踰1洞47 2의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경해운회장 安秉優씨(46·서울麻浦區望遠洞4 10의9)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禹씨는 城東지점장으로있던 지난81년5월중순께 安씨에게 세계개발은행(IBRD)차관 10만달러를 대출해주고 같은해 8월과 9월 두차례에걸쳐 2백50만원을 사례비로 받았고 지난해2월29일 3천만원의 기업운영자금을 대출해주면서 安씨로부터 사례비조로 1백만원을받는등 모두 3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것이다.

近代무역·수난史의 "산證人"

仁川세관 100돌 맞는다

公共기관중 史上최초로

◇개항과더불어 1백년전에 문을연 仁川세관。현 올림포스호텔부근에 보세창고32평, 해관검사소18평의 일본식목조건물이었다。

◇현대식 철근콘크리트의 仁川세관。59년 준공된 이건물은 5백38평으로 1백년전에비해 10배이상이 커졌다。

仁川세관이 오는16일로 설립 1백돌을 맞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중 사상 최초로 「1世紀」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올해로 설립 99주년, 培材학교가 98주년, 梨花여대가 97주년을 맞는다는것을 참고한다면 仁川세관의 1世紀는 우리近代수난사, 발전사의 축도이며 무역사의 역사적 현장이다.

또 우리행정도 완숙기를 얘기할 단계에 가고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仁川세관은 역사적인 설립 1백주년을 맞아 11일 「仁川세관1백년사」를펴내 제2의 1백년을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仁川세관1백년사」에의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쇄국의 문호를 개방시킨것은 日本이었으나 세관의 문을 연것은 당시 한반도를놓고 일본과 각축을벌이던 淸國이었다.

1876년 丙子修好조약에의해 釜山을 필두로 元山,仁川이 개항했고 1878년9월28일 釜山豆毛鎭세관이 문을열었지만 일본의 강압으로 석달을 견디지못하고 문을닫았었다. 물론 일본이 관세장벽없이 한반도의물자를퍼내가려던수작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1883년 淸國의 영향을 업고 3개항에 세관을 신설했는데 仁川세관이 맨먼저였다. 명목상 구한국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산하였지 제도나 사람은 淸國마음대로였다.

이름부터 稅關이 아니라 海關이었다.

초대세관장인 영국인 스트리플링을 비롯, 24명의 세관원중 요직은 淸의 추천을 받은 英·獨·佛·伊·美·日·露·淸人들이 차지했고 한국인은 잡역부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세관원의 월급은 세관장이 3백80달러의 거금을 받았는데 비해 한국인 세관원은 15달러, 또 사환은 단돈6달러에 불과했다.

8개 열강사람들에 의해 운영돼오던 이기묘한 「다국적세관」은 일제가 반도침략을 본격적으로 벌이면서 1905년 日人세관장이 취임한이래해방후까지19대세관장직을독차지했다.

한국인이 세관장이 된것은 해방후. 47년 2월 金埈德씨가 초대관장으로 부임한후 현재 통산52대 崔德燁씨에 이르고 있다.

「세관 1백년사」는 仁川세관 1세기를 이렇게 구분하고있다. 그처음이 「무관세시대」.

豆毛鎭세관폐쇄이후 仁川세관개관까지 7년간 무관세로 운영, 일제가 마음대로 자기네 제품을들여오고 농·광산품을 가져갔다.

이어 관세자주권이 인정되고 仁川세관이 문을 열었으나 일본상사와 高宗의 외교고문 獨逸人묄렌도르프간에 밀약으로 1889년까지 관세농간시대를 거쳤다. 이때 관세율을 보면 일본인의 생필품이 5%, 양주·시계·보석류가 25~30%, 일반상품이 8~10%, 수출품이 5%, 금·은·지금의 수출에는 관세가 면제되는등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수출입을 하게하는 관세율이었다.

"6월16일生" 첫세관장은 英國人

해방될때까지 日人손에… 2·3位는 99·98歲 우체국·培材학교

70년後斜陽…"大陸과 交易날만"

1百年세월따라관세제도의 변화, 개항의 수입품은 직물류와 석유·소금이었고 수출품은 쌀·인삼·콩·소·金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1百年후인 지금 仁川항의 수입품은 원목·곡물·무연탄·석유류·철강재·합판·설탕·시멘트순으로 근대무역국가로의 면모를 엿볼수있다.

仁川은 밀수변천의 현장이기도했다. 해방후 중국의 정크선밀수, 5·16후 외항선원 X밀수, 6·25후 P·X밀수, 요즘엔 컨테이너 이용 화물밀수로 이어진다.

仁川세관은 개관당시 경기·황해·평안·충청·전라등 5도를 관할했고 1924년에는 元山세관이 폐쇄된후 강원과 함경도를 관할했던 한국최대의 세관이었다. 그러나 70년 관세청발족이후 경기도 해안지방으로 관할구역이 줄어드는 등 영역이 축소되긴했지만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82년 관세액이 3천7백억원에 이르렀다. 또 세관원도 10배가 넘는 3백67명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나 세관의 눈부신 성장에 비하면 仁川항은 어쩐지 침체된 분위기. 「누워서떡먹기」란 보세창고가술집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면서 仁川사람들도 옛날의 『잘살던시절』을 그리워한다.

아울러 仁川세관은 한국제2의 항구를 지키고 있고 중국대륙과의 교역이 트이는 날 제2의 개항을 맞을 채비가 되어있는 문이다. 【仁川=이동사회부崔成基기자】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 추심않고 즉시현금지급

체신부는 11일 농어촌지역의 자기앞수표활용도를 높이기위해 지금까지 동일市·郡또는 동일 어음교환소지역안에서만 수표 추심을 면제하던것을 오는20일부터 우체국발행 정액자기앞수표는 전국어느우체국에서나 추심절차나 추심료없이 즉시 현금지급토록한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수표발행 우체국도 8백5개국에서 1천4백28개국으로 크게늘려 전국대부분의 읍·면·별정·군사우체국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수 있게했다.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정액 자기앞수표는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권등 4종류가 있으며 82년 한햇동안 발행고는 7백89만건에 1조9천6백3억원이었다.

남의땅서 철거않고 돈뜯어

자활근로대 운영위원 구속

서울南部경찰서는 11일 영등포 자활근로대 운영위원 印龍德씨(42)를 공갈및 부당이익 취득혐의로 구속했다.

印씨는 지난 75년5월부터 자활근로대원 10여명을 고용, 폐품 수집을 하면서 순흥安氏 종친회소유의 서울九老區始興4洞 813의3대지 6천87평가운데 3천여평에 가건물을짓고 작업장으로 이용해왔는데 安氏종친회측에서 지난4월2일 이땅을 3억2천만원에 팔면서 철거를 요구하자 그댓가로 6백만원을받았는것.

印씨는 철거비용을 받고도 지난달22일까지로된 철거약속기일을 어긴채 10여일 후 다시 종친회를 찾아가 50만원을 더 요구, 종친회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農大生에 징역2년선고

【水原】水原지법항소부(재판장 이영훈)는 11일 교내시위와관련,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던 서울농대 농학과4년 金재갑군(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통해 『金군의 재판받는 태도가 불손하고 뉘우치는빛이 전혀 안보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駘】

서울大生 2명구속

【水原】경기水原경찰서는 11일 서울농대생 金명서군(21·임학과4년)과 李준엽군(21·임산가공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군등 2명은 지난8일 경기 水原市西屯洞 서울농대 신관2층에서 유인물 2백여장을 뿌리는 교내시위를 주동한 혐의이다.【駘】

陸史미망인 安一陽여사 별세

【大邱】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陸史 李活선생의 미망인 安一陽여사가 11일상오5시 大邱시東區孝睦洞 동명아파트407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 安여사는 일제때 옥고를 치르던 陸史선생의 뒷바라지등 남편의 독립운동을 내조해왔고 지난1944년 陸史선생이 北京감옥에서 옥사한후 줄곧 大邱에서 살아왔다.

유족으로는 양자인 東博씨(42)와 딸 玉飛씨(43)가 있다.

발인은 13일 상오5시자택에서. 장지는 陸史선생의 묘소가있는 경북安東郡陶山面遠川洞선영.【駘】

5行뉴스

◆경운기 굴러 6명死傷

【井州】10일하오8시께전북井邑郡山內面梅竹里 정안마을앞 노상에서 경운기를 몰고 귀가하던 박종호씨(42·井邑郡山內面菱橋里420)가 운전부주의로 5m언덕아래로굴러 경운기에 타고있던 박씨의 3녀 혜정양(4)이 숨지고 박씨를비롯,같은마을 현자씨(37·여)등 5명이 신경상을 입었다.【駘】

◆소양강·原州川서 둘溺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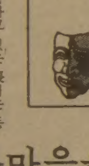
【春川】지난10일 낮12시30분께 강원 旌善郡東邑德川里 소양강하류에서 旌善郡新東邑 古城1里 李용환군(17)이 멱감다 익사했다.

또 이날 하오 4시께 原州시 鳳山1洞 원주천에서 李종섭씨(45·鳳山1洞10통3반)의 차남 창우군(5)이 깊이 1m의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駘】

답답한 사람들

진아斷食院 원장 張益洙씨

"막혔던 몸과마음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만사가 여의치 않으면 소화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쉽다. 이런때 단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것도 한 치료법이다.

진아단식원 張益洙원장(41·사진)은 『단식을 지도해 사람들의 답답하게 막혔던 마음을 열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니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것이 아니냐』고자랑한다. 그러한 사람을 치료해줌으로써 가정과 사회가 밝아지고 건전해지니 그렇다는 논리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2대째 단식원을 경영하고 있는 張씨는 동생도 부산에서 단식원을 열고있는 「단식가족」. 이때문에 주위에선 張씨네가 사람을 굶겨 돈을 버는 집이라고 농담한다.

張씨네 단식원을 찾는 사람은 각양각색이다. 비만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자집딸과 며느리, 카바레를 경영하다 친정돈까지날린 여사장, 외국에 일하러간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가정주부, 과욕을 부리다 병을 얻은 복부인등 모두가 어딘가 답답하고 아픈 사람들이다.

張씨는 환자가 들어오면 우선 기분전환을 시킨다. 노래도 시키고 에어로빅도 추게한다. 봉고차로 드라이브도 시키고 약수도 마시게하며 물리치료도 한다. 단식법도 시대에 맞춰 현대화했다는 것일까. 張씨는 현대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食」을 잘못하고 있다고 나무란다. 지나치게 먹거나해 소화기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때는 단식을통해 소화기관을 쉬게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 전신의 생리기능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호흡기병이나 결핵환자와 십이지궤양을 앓고있는 사람은 금물이라고 충고한다.

표준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식으로 버틸수있는 기간은 약40일정도로 꼽는다. 81년도 영국에서 옥중단식을 했던 보비·샌즈의원이 66일까지 버틴 일이 있으나 그경우는 예외란다.

단식은 그러한 의지력테스트나 질병치료외에 정신도야, 자기확립등에 큰도움이 된다는점에서 한번쯤 해 봄만하다고 張씨는 권한다. 【宋大洙기자】

특별금리의달

자산 **$5,000,000** 달성을 눈앞에 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 은 보다 높은 금리로 보답하고저

"특별금리의 달" 을 설정하였읍니다.

바닥이 드러나가는 일반금리의 움직임은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오르며 매월 이자를 받는 월복리의 오뚜기 정기예금!!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교민이면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이 높은 이익을 받아가십시오.

이율	예금종별	기간별	한인신용조합	참고 일반은행	기간
	일반정기예금	30~90일	7.75%	7.00%	6월10일부터
		120일	8.00%	7.25	7월19일까지
		180일	8.25%	7.50	40일간
		365일	8.75%	8.00	
	오뚜기 정기예금	6개월 이상	8.75%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TORONTO
PHONE; 533-9387/9388

◇우루과이도 잡자 4강진출전을 앞두고 한국선수들은 다시 한번 파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멕시코로 떠나기전 朴鍾煥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

"도전자는 奇蹟을 낳는다"

青少年축구

우루과이 攻擊트리오 "허리에서 끊어라" 指令

한국팀 컨디션最上… 士氣충천

【몬테레이(멕시코)=安奉煥특파원】 영원한 강자는 없다. 제4회 세계 청소년축구대회서 돌풍을 일으키고있는한국은 12일 상오8시(한국시간) 전통의 강호 우루과이와 8강전을 벌인다. 승부의 주사위가 어디로 던져질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이곳에 온 세계각국의 축구관계자들과 기자들은 『이번대회서 가장 큰놀라움을준 한국이 우루과이마저 KO시킨다면 세계축구사에 기록될 대사건이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朴鍾煥감독의 작전, 선수들의높은사기와 팀웍, 申連浩를비롯한 공격진의 기동력을격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은 우루과이 우세쪽으로 기울고 있다. 붉은 유니폼의 한국은 거친파도와같은 강렬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도의 개인기를구사하고 있는 우루과이가 4강전에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는 예상이다.

새로운 신화에 도전하고 있는 朴鍾煥감독은『세계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우리는 불가능하게보였던 목표에 꾸준히 도전하여 조그만 결과를 성취했다. 우루과이가 우승후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며 선수들의정신적자세와 경기운(運)이 작전에 의해 승패가 바뀌는 사례가 허다하다. 사실 8강에 올라있는 각 나라 선수들의 개인차는 비슷하다. 나는 김포공항서 떠날때에는 8강보다도 예선돌파가 더 어렵다고 믿고 있었다』고 강조, 총력을 기울여 우루과이와 맞서겠다는 의지를보였다.

부상중인 李奇根 崔益煥을 제외한 선수들은 高地의 핸디캡을 잘극복,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있어 마음든든하다. 한국의 작전은 예선 3게임때와 큰변화가 없으나 우루과이 공격진의 돌파력이 대단하므로 수비력을 더욱 두텁게하면서그들의기동력을 허리에서 부터 끊어버릴 계획이다.

특히 우루과이의공격 트리오인 루벤·소사,아길레라, 호세·살라자르를 경계하도록 수비선수들에게 특별명령을 내려놓고있다.

한편 8강에 오른 유럽 4개팀감독들은 기후조건, 팬들의 응원, 식사문제등에서 유럽팀들이 열세이기 때문에 이번대회覇權은 남미3팀(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중 어느 한 팀에돌아갈것으로 예상했다. 유럽팀중 스코틀랜드 또는 폴란드가 4강전에가담, 나머지 3강과 격돌하게 될거라고 내다보았다.

유럽의 감독들도 한국-우루과이전은 정교한 기술이 떨어지는 멋진 한판이 될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8강대진

12일		13일		12일		13일	
스코틀랜드	폴란드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한국	우루과이	체코	브라질

16일: 스코틀랜드·폴란드 승자 – 아르헨티나·네덜란드 승자 / 16일: 한국·우루과이 승자 – 체코·브라질 승자 / 20일: 결승

한국이 우루과이 물리쳐도 놀랄사람없다

AP通信 격찬記事 세계로 打電

한국청소년 축구는 지금 세계의 화제가 되고있다. 최근 AP통신의 다니엘·하커기자는 멕시코서 한국팀을 격찬하는 기사를 세계에 내보냈다. 해외에서 많은 국제경기를 벌였지만 한국에 촛점을 맞춘글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AP통신 기사를 요약한것이다. 【편집자註】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모습을 나타낸 한국은 이대회 출전 16개팀 가운데 가장 큰 놀라움을 일으킨 선수단이다. 대학선수를주축으로 구성된 한국은 예선1차전서 영국 프로1부리그소속 선수가 17명이나 있는 스코틀랜드에 패했다. 스코어는 2-0.

그러나 이중 1골은 의문의 페널티킥으로 나온것이고 20m 슛에의한 득점역시 GK가 동료들에 가려진상황에서 허용한것이다.

제2차전에서 한국은 홈팀 멕시코를 물리쳐 아즈테카구장의 10만관중을 경악시켰다.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때야 한국에 모이게되었다. 이어 濠洲도 물리쳤다. 필사적인 濠洲의 후반공격을 정신의 강인함으로 극복한 한국은 빼어난 축구를 선보였다.

8강전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우루과이와 대결하게되어 전망은 밝지못하지만 한국은 고도의기량을과시, 선진여러나라와 비교하여 손색이없는 側球力과 함께 장거리슛 능력을 보여주었다. 체력조절이 대단히 잘돼있어서 90분동안지치지않고 뛰며경기를잘견뎌내었다.

한국의 핵심선수는 申連浩였다. 그는 對멕시코, 濠洲경기에서 가장 뛰어나보였다.

한국이 우루과이를 물리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않다. 그러나만약 한국이 이긴다고 해도 이번이라고 놀라와할사람은 많지않을것이다.

許丁茂, 총알같이 敵陣돌파

후반2분 절묘한 어시스트… 뉴질랜드完破

2-0

대통령배국제축구

아인트호벤 4强진출 확정

【釜山=閔炳宅기자】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이 한국대표팀에 이어 4强이 겨루는 준결승진출이 확정되었다.

11일 九德경기장서 진행된 제13회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8일째 B조경기서 아인트호벤은 뉴질랜드를 2-0으로 꺾고 3연승을 기록, 남은 油公과의 대전결과에 관계없이 4강진출이 결정되었다. 뉴질랜드는 1승1무2패로 준결승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1승1패의 油公은 수단이 인트호벤과의 경기를 남겨놓고있어 2게임중 한게임만져도 준결승진출이 위험한 상태다.

한편 전날 벌어진 한국대표와 美國대표팀과의 경기서는 한국대표가 曺敏國의 연속골에 힘입어 3-0으로 완승, 4연승을 기록했다.

아인트호벤은 전반44분 롤호프의 센터링을 포르트폴리트의 슛으로 선제득점을 올린후 후반2분에 許丁茂가 오른쪽을 돌파하며 페널티정면의 로크호프에게 이어주자 로크호프가 가볍게 차넣어 2-0으로리드했다.

아인트호벤은 경기종료 2분을 남기고 케르크호프의 센터링을 로크호프가 다시 골에 연결, 3-0으로 대승했다.

◇제8일전적

▲B조

아인트호벤 3(1-0 2-0)0 뉴질랜드
(3승) (1승1무2패)

◇제7일전적(10일)

▲A조

대한한국표 2(2-0 0-0)0 미국표
(4승) (1승2무1패)

金振榮 감독 게임 안나가

자숙의 뜻 表明

구속10일만에 풀려난 三美슈퍼스타즈의 金振榮감독은 자숙의 뜻으로 당분간 그라운드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三美구단은 11일 팬들에 대한 사과와 金감독자신의 피로회복을 위해 휴식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감독은 우승다툼 막바지에서 흐트러진 팀웍을 다지기위해 그라운드 밖에서 만 선수들을 지휘하고 전기시즌 남은 9게임에는 출장치않을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靑龍이 金東燁 前해태감독을 새감독으로 계약한데이어 그동안 팀을 이끌어왔던 兪百萬감독대행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시 휴가를 요청했다.

前감독 白仁天씨와 마찬가지로 兪百萬수석 코치의 시즌도중 휴가신청은 코칭스태프의조화가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말해주고있다.

를 다짐하던 白仁天 前감독도 金東燁 감독의 취임과 兪감독대행의퇴진등 구단 조치로 선수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靑龍旗야구

沖岩中 중등부覇權

釜山高·北一高, 준결승 진출

沖岩中이 38회 청룡기야구선수권대회 중등부 우승을 안았다.

沖岩中은 江南中과의 결승전에서 투수 羅鎭均의루타에 걸친 활약에 힘입어 8-3으로승리를거뒀다.

羅鎭均은 이날 7안타, 3실점으로 선방하는 한편 공격에서도 1회말 동점적시타를 날리는등 우승에기여, 대회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한편 10일벌어진 고등부 준준결승에서는 北一高와 釜山高가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다.

北一高는 2회말 1번李鍾豪의 2타점 좌전안타를 비롯한 3안타와 포볼2개를 묶어 3점을 얻고, 3회말에 金光允 李光俊의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는등 모두9득점, 마운드가 불안한 大邱高를 9-3으로 눌렀다.

釜山高는 릴리프로 등판한 1년생朴東熙의 쾌조의 강속구로 4-2로이겨 江陵高의 돌풍을 잠재웠다.

◇중등부결승(11일·서울운)

강남중 100 020 0 – 3
충암중 400 031 × – 8

◇고등부준준결승전(10일)

부산고 000 101 110 – 4
강릉고 000 100 001 – 2

▲홈런=金鎭輝(6회·부산고)

대구고 001 020 000 – 3
북일고 032 210 01× – 9

◇개인상

◆중등부 ▲최우수선수=白城眞(충암유격수) ▲우수투수=羅鎭均(충암투수) ▲감투=李亨九(강남투수) ▲수훈=金元圭(충암2루수) ▲타격=洪雨約(강남중견수) 6타수4안타(0.667) ▲공로=鄭澤暎(충암교장) ▲지도=蔡錦錫(충암부장) ▲감독=金泰洙(충암감독)

東獨 마를리스·괴르 여자百m 세계新

10초81로 0.07당겨

◇마를리스·괴르

세계에서 가장빠른 여자선수 마를리스·괴르(사진·25·동독)가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9일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기념국제경기대회 여자1백m서 10초81을 마크, 77년과 82년 자신이 세웠던 종전 세계최고기록 10초88을 0.07초 경신했다. 이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한 마리타·코흐(동독)도 10초83으로 세계신기록을 냈다. 【AP聯=聯】

安國一, 은메달

세계靑少年유도 黃光訓 동메달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1일(한국시간)푸에르토리코에서개막된 제3회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첫날경기에서 한국의 安國一(인하대1년)과 黃光訓(국민대1년)이 각각 銀메달과 銅메달을획득했다. 7개체급에 7명의 대표선수로 구성된 한국선수단은 첫날 2개체급에 2명이모두 메달을 따냈다.

86kg(미들)급의 安國一은 준결승서 日本의 하세가와에게 배치기 한판으로 이겼으나 결승에서 쿠바선수에게 「효과」를 빼앗겨 준우승했다.

韓美친선 女子배구

오늘부터 釜山등서 4연전

美國과한국 여자배구표대팀간의 친선경기가 12일부터 4개도시에서 4연전으로열린다. 美國여자배구는 81년월드컵대회에서 4위를차지하면서 폭풍의 눈으로 등장, 지난해페루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서 3위를차지했으며 2위에 오른 페루보다 실력이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일정(하오) ▲1차전=부산구덕체·12일6시 ▲2차전=대구실내체·13일6시 ▲3차전=광주실내체·14일6시 ▲4차전=서울잠실종합체·16일6시

유니티카팀에 敗北

日원정 한국女배구

【시모노세끼AP=聯合】日本에 원정중인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10일 열린 유니티카팀과의 친선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3차례벌어진 친선경기에서 2승1패를 기록했다.

◇전적

한국 1(4-15 15-10 1-15 16-18)3 유니티카

스포츠短信

◆MBC 야구사진 공모

프로야구팀 MBC 靑龍은 프로야구경기의진기록, 명승부를 전시하고 보전하기위해 야구사진작품을 공모한다. 작품내용은 83년 프로야구경기, 규격은 가로14·세로11인치이상 파넬. 참가자격과 출품수에 제한이 없으며 1점당 출품료 2천원이다. MBC는 10월31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금상(1명) 2백만원, 은상(2명) 1백만원, 동상(3명) 50만원, 가작(5명) 30만원, 장려(10명) 10만원의 상금과 기념트로피를 시상한다. 접수처는 여의도 MBC구단사무실. 발표일은 11월30일.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땅끝에서 오다 <81>

金成一 作 / 宋龍 畵

침묵하는 글자들 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는 「단」를 집어넣었던 암호문에다가 항공사 이름들을 넣어보았다. 남아프리카 항공 53다8다7 레바타항공 2226 필리핀 항공 다913 다7192 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다6다5 KLM항공 42 다 63717 서남태평양항공 2219 이세원.

여전히 글자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바블에 나오는 말처럼 눈이있어도 보지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식이었다.

(……이 세원. 너는 끝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나는 너를 찾아야하는데, 너는 안개 속에서 날 비웃고 있는 것이다……)

준호는 지나가는 스튜어디스에게 위스키 한잔을 더 부탁했다. 가뜩이나 웃지않는 스튜어디스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답답할때, 너라도 좀 웃어줄 일이지…)

언제나 외국사람들 앞에서는 한국여자를 자랑하는 준호였다.

중국여자는 테크닉이 좋고, 일본여자는 서비스가 좋고, 한국여자는 마음씨가 좋다는 식으로 제나라 여자랍시고 자랑을 했지만 정말 웃지않는 여자는 재미 없었다. 끼리끼리 모이면 너무 헤프게 웃고, 낯선 사람앞에선 큰 보물이라도 아끼듯이 웃음에 인색한것이 한국여자였다. 특히 웃음이 필요한 곳일수록 웃음을 절약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진것이 한국여자였다. 그래서 입에 발린소리 좋아하는 일본사람들에게 한국여자의 인상을 물으면 십중팔구 예쁘고, 매력적이고, 몸매가좋고…하며 칭찬을 해대지만,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는 서구인에게 물어보면 대뜸 한국여자는 「하드」(딱딱하다)하다고 대답하는것이었다. 그래서 느이나라 여자들은 어떠냐고 물으면 한국여자보다 「소프트」하다고들했다. 소프트…외로운 한국남자들은 얼마나 그 소프트한 여인을 동경하고 있는가.

비행기 여행을 많이하는 사람들은 흔히 항공사 이름을 닉 네임으로 바꿔부른다. North West(서북항공)은 Not Worst(최악은 면했다)' Alitalia(이태리 항공)은 Always Late(언제나 늦는다)' Alitalia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British Airway (영국항공)이었다. 그 닉 네임은 실로 Better than Alitalia (Alitalia 보다는 좀 낫다)이었던 것이다. 준호는 속으로 KAL이 잘못하다가는 이런 닉 네임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KAL…Keep Away From Laugh (웃음이여 안녕)

무뚝뚝한 아가씨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위스키글라스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을까 말까 망설이는것 같더니 그대로 돌아서고 있었다. 마치 침묵하고 있는 암호속의 글자와 같았다.

(그래도 마음씨는 좋을거야…)

그는 속으로 자위하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향긋한 냄새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사람찾음

346 Weston Rd. 칸추리사이드 도나스숍을 맡아서 하시던 권경수(46세 가량)씨를 찾습니다.
권씨가 6월2일 이민국에 신청한 제반서류가 도착하였으니 빨리 연락 주십시요. 전화 : 665－0790

여권분실

여권분실 재공고
일터에서 여권을 잃어 버렸음. 전화 : 921－1644
여권번호 #R221791 －박우만－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속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충원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구혼

1957년생임. 신랑감을 구함(단 시민권자)
현재 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음.
전화 : 947－9383 (Mrs. 김, 오후6시이후)

45세의 건강한 시민권자임.
재혼할 여성을 찾음.(40세－45세)
전화 : 751－3628(오전 9시－12시 사이)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실내설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 445－6440(B) 755－0308(R)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집, 음식점, 도넛숍, 사무실, 디자인등

댄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상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 드립니다.(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가죽및 인조가죽
－각종 섬유제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1,000 Sq Ft. 가게와 방 세놓음.
다운타운 지역.(사무실에 적합).
전화 : 368－9018, 366－0960

2 베드룸 아파트멘트. 상가2층으로 완전한 Private임.
케네디 Subway 종점에서 한블락 East.
$400. 전화 : 439－9797 Mr. 한.

웨이딩드레스

웨이딩 드레스◉웨딩드레스 판매 또는 렌트
◉파티용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및 청첩장등
1503 Bayview Ave.(B)485－9419, 488－0639 실비아·원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 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인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수 선

FRIENDLY SHOES REPAIR SHOP
구두수선, 친절봉사
2400 Bloor St. W.(Jane Subway 옆) 전화 : 763-6188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가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곤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법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8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야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2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종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문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RES : 252-7491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Auto Service(Tune-Up, Brake, Engine)
6 Moselle Dr. 전화 749-9749 Mr.박(출장수리)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깨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건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안내판 9면에 계속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 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경험있는 Gross a Enbroidery Machine 기술자 구함.
약간의 영어 필요함.
Please Contact Maryanne 593-0320

웨이트레스 구함.(모나미 일본식당)
월-금(AM 11:30-PM 2:30까지) 일함.
전화는 오후2시30분 이후 421-6016 Mr. 마즈다

서양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 있는
웨이트레스 급구함(근무시간 오전9시~오후5시)
전화 : 923-3060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 캐쉬어구함.
밤일, 낮일, 풀타임, 파타임.
전화 : 284-9325

요리사 구함.
한식·중식요리
전화 : 498-1300 Mr. 리

햄버거숍에서 근무하실 남자분 구함.
영어회화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921-9745(오후 8시-11시 사이)

여자 Cashier Store Helper 구함.
전화 : 465-4358

유경험자 Cashier 구합니다.
전화 : 654-6336

재봉사 급구(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개인 전문 교사로 영어, 수학 가르침.
(어린이, 어른) 싼 수업료.
전화 : 636-5202 Janyce

남·녀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일 지불함. 좋은 농장.
전화 : 461-7994.

룸메이트 구함. 여자분 원함.
전화 : 621-4985. (민정엄마)
저녁 6시이후(월~목요일) 전화하세요.

경험 있는 캐쉬어 구함.
전화 : 690-5554.(맥스 밀크 Mr.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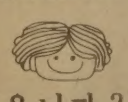
야채취급 경험있고 운전면허 있는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759-9331.

북미 최초의 한국인 야마하 피아노
대리점으로 사업운영에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전화 : 881-8230. Mr. 윤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이사 하셨읍니까? 한국일보



매 매

몰안에 있는 Hot Dog Stand 팝니다.
좋은 장소.
전화 : 826-5942(오후2시~4시), 622-7763(오후5시이후)

체스트 휠드, 침대, 쇼파 세트, 높은 바 의자, Love Seat, 각종 매트레스, Sectionals Desk, Discontinued Styles 매트레스.
영업시간 : MON-FRI(AM9~PM5), SAT(AM8:30~PM2)
DIAMOND BROTHERS
106 Orfus Rd.(Dufferin & Lawrence)
전화 : 781-5563

Nature & Health Food Store 팝니다.
좋은 장비, 바쁜 스카보로 플라자내(가족사업), 좋은 리스.
전화 : 298-1118(4-6 PM) Mr. Gary.

하우스 팝니다.(미시사가, 다운타운까지 15분거리)
5 베드룸, 화장실 3, 큰 Lots(70 × 200), 따로 부엌시설이 된 넓은 레크레이숀 룸, Work Shop, Double Garage with in office & extra parking.
Easy Financing, Asking $139,000
전화 : 279-9739, 698-6219

현재 성업중인 스토아및 건물 팝니다.
전화 : 532-8260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형편상 급매.
권리금, 스탁 합쳐 5만불 정도. 경험자로 스탁 늘려 키울수 있는 분에게 양도코자 함. 62 Main St. North Markham(HWY 7, HWY 48 북쪽 프라자)

3년된 2층 벽돌집 팝니다.
(Dufferin & Steeles)
4 Bedroom, 2 Fire Place, 센트럴 에어콘디숀,
완전히 꾸며진 지하실, 그밖에 많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좋은 House.
전화 : 638-6181, 669-4912 Mrs. Lidia
NARDI REAL ESTATE.

성업중인 Gift Store 급매.
큰 Mall안에 있음. 여자 혼자서 운영 가능함.
리스 1992년까지. 전화 : 633-7479

버라이어티스토어 급매(2층 APT건물포함). 월이익금 $4,300이상. 아스킹$11만9천 + Stock. $3만9천 Cash 잔금은 Mortgage를 줄수 있음. 1-523-5885 Hamilton

---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500. Asking $4만2천 + Stock.
1541 O'Connor Dr. (직접 내방요)

헤어드레스 Shop 비지네스 팝니다.
Asking $12,000(장비포함 일체) 렌트 $380.
전화 : 921-5947. 5년 리스.

그로서리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6,500.
아스킹 $8만+스탁. 직접 내방 요망.
3601 Lawrence Ave. E.(Terrace Brae Plaza내)

---

(1) Tuck Shop 팝니다.
주매상 $3,500. 리스 4년반 + 5년 + 5년.
렌트 750불. 아스킹 5만불.
(2)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7,000(과거 $9,000) 리스 4년반 + 5년. 렌트 1,200불.
(3) 빌딩내에 있는 Fast Food(Take-out)
주5일 오픈, 주매상 3천불, 리스 4년반 + 5년.
렌트 1,500불, 가격 12만불.
전화 : 741-9170. A.E. LePage Real Estate. Mrs. 우.

버라이어티 스토어 팝니다(건물포함)
주매상 : $5천 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 3 베드룸. 전화 : 781-7080.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Mall 안에 있는 과일가게 팝니다.
연매상 35만불. 문의전화는 284-3031.
(토요일 오후6시 이후, 또는 일요일 전화요망)

아주 싸게 내놓은 2층 4베드룸 큰 주택.
걸어서 한국교회에 갈 수 있음.
전화 : 787-3702(Bathurst & Wilson)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Bloor St.W. & E. of Christie St.)
주매상 : $7,500. 장소좋은 한인지역.
전화 : 977-0578(Mr. Fred or Jean) K.SEE REAL ESTATE INC.

터숍 매매. Courtesy Tobacco & Gift. 아스킹 : $3만(Off 가능). 콘도미니움빌딩 지하에 있으며 콘비니언스 스토어로 바꿀 수 있음. 주소 : 110 Bloor St. W.(Low Concose). 전화 : 362-0861.

One Way 칼가리 비행기표 팝니다.
전화 : 598-2436

드라이클리닝 플랜트 팝니다(다운타운 플라자내)
$1,500 wk/gross. Lease to 1996.
전화 : 752-7575 Mr. Sotos(Rainbow 부동산)

Tuck Shop 팝니다. 주매상 $5천.
전화 : 242-2907.

---

(1)토론토에서 30마일 떨어진 상업용건물(건물 Built 1978) 급매.
2개상점. 2 Apt 월 렌트수입 $750. 버라이어티스토어. 1 Apt. 구두수선가게+기계(건물주인). Asking $175,000
(2)구두수선가게(Missi On Mall). Asking $90,000.
전화 : 826-4 355

비즈네스 전망 좋음!
2 에이커의 땅이 있는 살림할 수 있는 가족 비즈네스로 적당.
개스 펌프및 세탁기 있음. 일년내내 운영함.
쿠치칭 호수 근방. 주인이 재정운영 관계를 도울것임.
오퍼 접수중. Moore & Lougheed Ltd. (오릴리아 지역)
전화 : 1-(705)325-4448

토론토에서 한시간~한시간 반 거리.
(1) 버라이어티 가게(살림방 포함)
(2) 작은 여름관광 캠프(2 베드룸 살림집 포함)
(3) 가족 계절적 관광사업(3 베드룸 살림집 포함)으로 10개의 Cottage, 모터보트, 가게, 캠프장 포함.
전화 : 416-797-2256(Call Roz McCullough)

몬트리얼지역 그로서리 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Lotto. 주매상 1만1천+1,300(Lotto)
Asking $9만+스탁(현찰 8만불).
NO MWAT NO DELIVERY
전화 : 1-514-364-4627 MR. 송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팝니다.
◉살림집 : 2 Bedroom, 거실, 부엌, 변소, 식당
◉가 게 : 년매상 20만불 접근
◉특수여건 : Gas 스테이숀을 할 수 있음.(집터 ½에이커)
전화 : (519)631-9778(런 던)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팝니다. 전화 : 222 -1770
주매상 $7,500-$8,000. 리스 1990년+옵션. Tor.
렌트 $832(Monthly). 800세대가 사는 터숍.

Kim Amusement Arcade
Over 20 Video Games + Smoke Shop
40 Centennial PKWY N
Across from Eastgate Square HAMILTON
Ask John Kim(Owner)
After 8 : 00 p.m. 1-561-011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 × 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 - 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페인트(파라, 벤자민무어등)와 벽지취급. 페인트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악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 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차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24-1967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바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개업일 대세일

6월29일(수)~7월3일(일)

거북이 나전칠기 공예사

그랜드 · 오프닝

◎개업일 : 6월29일 (수) 오후6시~10시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간 교민들의 계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나전칠기 공장을 설립, 선 보이고자 합니다.
일차 왕림해 주셔서 많은 지도편달 주시옵고, 앞으로도 더욱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석 올림

※북미주 최초의 **나전칠기공장**
※특별봉사합니다

- ○커피테이블
- ○애 기 장
- ○삼 층 장
- ○문 갑
- ○구 절 판
- ○화 장 대
- ○성화 · 동양화 벽걸이
- ○보 석 함
- ○각종나전칠기 제품일체
- ○각종자개제품 수선일체

거북이나전칠기주식회사

Showroom
691 BLOOR ST. W
TORONTO, ONT.
(416) 530-4364

TURTLE
MOTHER OF PEARL INC.
거북이 나전칠기 공예사
ART CRAFT INLAID WITH MOTHER OF PEARL

대표 이정석

Factory
1024 DUPONT ST.
TORONTO, ONT.
(416) 532-9379